

서정진 "셀트리온, 화이자와 견줄 회사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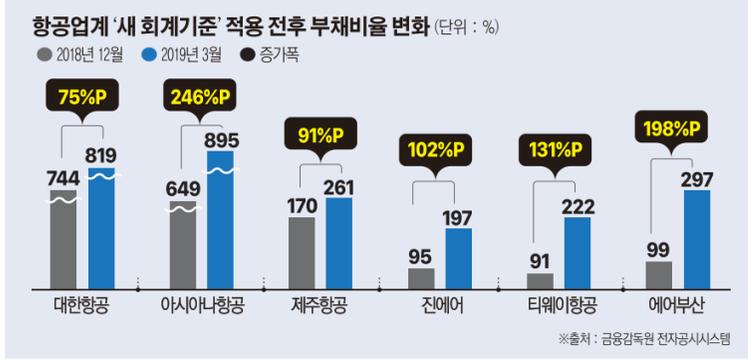
IATA 총회 2주 앞...조원태 회장 데뷔전 10 

코스피(18일) 2067.69 (-25.09P) 코스닥 717.59 (-12.01P)  
환율(달러당 원화) 1191.5 (+2.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675% (-0.0359P)

## 새 회계기준 도입

# 부채비율 2~3배 급등

# 비상 걸린 항공업계



항공기 운용리스 빛으로 책정  
아시아나 1분기 246%P ↑  
기업 적정가치 산정도 불리

올해 리스(임대)를 부채로 인식하는 새 회계기준(IFRS-16)이 도입되면서 1분기 첫 성적표를 받은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국제회계기준은 항공사 운용리스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한다. 기존에는 '금융리스'만 부채로 평가됐다면 이제는 두 가지 상황 모두 빛으로 책정된다는 의미다. 항공사 운용리스는 빌린 자동차(렌터카)와 같이 임대회사로부터 일정 계약기간 항공기를 빌려 쓰는 방식이며 금융리스의 경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항공사에 소유권이 생긴다. 16일 올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6개 국내 항공사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에어부산으로 새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전 분기(99%) 대비 무려 198%포인트 증가한 297%를 기록했다.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에어부산은 1분기 기준 보유 항공기 25대가 100% 리스인 만큼 부채비율도 급등했다. 부채에서 리스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2%나 된다.

에어부산과 마찬가지로 26대 항공기 모두 대여 중인 진에어도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95%에서 197%로 102%포인트 증가했다. 진에어 역시 부채 총계 대비 리스부채 비중은 60%로 높다. 이외에도 리스비중이 90%가 넘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도 부채비율이 각각 91%포인트, 131%포인트 올랐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운용리스를 통한 항공기 운용방식을 직접 보유로 바꿔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연료효율이 높은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당장 부채비율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리스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부채비율이 최대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봤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3배까지 뚝 떨어졌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도 예외는 아니다. 리스비중이 60%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연결기준)이 649%에서 895%로 증가했으며, 대한항공도 744%에서 819%로 상승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리스회계 기준 변경 이후에는 부채 규모의 증가가 적정 기업 가치 산정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블룸버그통신〉

# “트럼프 車관세 결정 연기”...한국 제외될 듯

美·中 무역협상 격화...日·EU 등과 마찰 회피 위해 6개월 미뤄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및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차가 자국 안보를 해친다는 구실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해왔다.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를 대체하면서 미국의 혁신 능력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EU 및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유발하는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 결정을 미뤄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를 약간이라도 진정시

**미 '자동차 관세 부과' 일정**

2월 17일	미 상무부, 관련 조사 결과·건의 담은 보고서 의회 제출
5월 18일 (90일 이내)	트럼프, 조사 결과·건의 수용 여부 결정
<b>연기</b>	11월 14일(180일 연장)

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6개월 연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정권이 검토 중인 행정 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

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크게 긴장했으나, 일단 표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는 2월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민관 합동으로 미 정부, 의회 관계자 등과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유명한 통상고섭본부장은 이번 주 초부터 사흘 동안 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무리한 것이 이번 관세 부과 예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자동차 수입 쿼터를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FTA 개정 협정을 마무리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



EU 운송총국장 '현대차 넥쏘 엄지척'  
EU 운송총국장 '현대차 넥쏘 엄지척'

헨리크 홀로레이(왼쪽) 유럽연합 집행위 운송총국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네트워크 행사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 GS칼텍스, 여수 화양공장 매각

“소규모 공장 정리 효율성 제고”  
GS칼텍스가 복합 폴리프로필렌(PP)을 생산하는 화양공장을 매각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15일 전남 여수에 위치한 화양공장을 석유화학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 이폴리텍에 매각했다. GS칼텍스 이사회에서 화양공장 매각 승인의 건이 가결된 뒤 3개월이 채 가기도 전에 거래가 체결됐다. GS칼텍스 화양공장은 복합PP를 생산하던 곳이다. 복합PP는 PP를 원재료로 충전제, 첨가제 등을 섞어 가공해 우수한 물성을 구현한 소재로 자동차나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재료로 사용되

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다. 화양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산 3만 톤이며, 부지는 약 1만 5000㎡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효율화를 위해 화양공장을 매각했다”며 “다만 거래 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화양공장 이외에도 경남 진주, 충북 진천, 중국, 체코, 멕시코 등 국내의 공장에서 연간 총 27만 톤의 복합PP를 생산해왔다. 이번 화양공장 매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장을 정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진주·진천 공장 등 나머지 공장의 향후 증설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들 공장의 규모는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 수백억 특허기술 무상 사용 해외법인 등 포함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법인 84개,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또 탈세 제도·유관기관 정보·현지 정보 등 국내외 수집 정보를 활용,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자가 조사 대상이다.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 조력자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79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조사 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고,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법법재산환수 협동조사단과의 공조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 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매출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현저히 큰, 이른바 빙산형 기업 A사는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사주 일가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월급을 받아 챙기며 호화 생활을 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등 120억여 원을 추징당했다. 글로벌 기업 B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를 사업구조개편 이후 판매지원 운영만 제공하는 '판매 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40억여 원을 추징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셀트리온그룹 회장〉

# 서정진 “2030년까지 40兆 투자”… 글로벌 1위 도전장

## 셀트리온 ‘비전 2030’ 발표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장사다. 모든 대기업은 미래를 위해 쌓아 놓은 현금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2030년까지 40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바이오의약품에서 케미컬의약품까지 확고한 경쟁력을 갖춰 셀트리온을 글로벌 1위 제약기업 화이자와 견줄 만한 회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1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셀트리온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담은 ‘비전 2030’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인전 송도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25조 원 △충북 오창 케미컬의약품 사업에 5조 원 △U-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11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재원은 그룹 영업이익과 글로벌 투자 유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지금까지 영업이익의 40%를 연구개발(R&D)이나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3공장 건립·신약 확보 등  
송도 바이오밸리 육성 청사진  
11만개 직간접 일자리 창출

“미래 위해 과감하게 투자  
‘화이자’와 어깨 견줄 것”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케미컬의약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 셀트리온

“2030년까지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40%에 해당하는 약 30조 원에 더해 다국적 제약사 지주회사로부터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본사가 있는 인천 송도에 거점을 둔 바이오의약품 사업에서는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2세대 바이오시밀러 20개 이상을 개발하고, 신규 치료 기전을 도입한 신약을 확보하는 데 16조 원을 투자한다. 또, 연간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1500배치(10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확충하고, 연간 1억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완제의약품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등 세계 1위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데 5조 원을 쏟는다. 남은 4조 원으로는 글로벌 유통망 구축을 통해 올해 유럽, 내년 아시아·남미에 이어 2021년 세계 최대 시장 미국까지 직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20만 리터 규모의 3공장을 송도에 짓기로 확정했다. 또한 중국에도 같은 규모의 공장을 건설, 내수 판매 및 위탁생산(CMO)에 활용할 예정이다.

케미컬의약품 사업은 셀트리온제약이 있는 충북 오창이 주 무대다. 의약품 수명 주기를 고려해 약 50여 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라이선스 및 자체 개발을 통해 신약 제품도 개발한다. R&D에 4조 원을 투자하며, 1조 원을 투입해 생산설비도 연간 100억 정 규모로 확충한다.

서 회장은 “2030년 목표 매출은 30조 원”이라며 “셀트리온은 이익이 높은 바이오의약품에 강점이 있어 계획대로 투자하면 영업이익은 글로벌 1위 화이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 10조 원을 투자할 U-헬스케어 사업도 구체화했다. 의료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사업에 4조 원을 투입해 환자 진료부터 처방과 유통에 이르는 과정을 4차 산업과 연계하는 바이오 e-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맞춤형 진료 및 정밀 진료에 필

요한 의료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진단기기 개발 생산에 6조 원을 투자한다.

셀트리온은 비전 실현을 위해 2000여 명의 R&D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공장 확충에 따른 생산시설에도 약 8000여 명의 채용이 필요해 총 1만여 명의 직접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원부자재 국산화 및 4차 산업 진출과 관련된 업종 전반에 10만여 명의 간접 고용효과를 고려하면 총 11만 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 계산이다.

특히 서 회장은 인천시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송도를 ‘바이오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3공장 건설 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송도 11공구에 약 33만㎡(약 10만 평) 규모의 부지 매입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서 회장은 “삼성이 우리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두 앵커기업이 우리 바이오산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에서도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NH농협은행장〉

## 28년 만에 머리스타일 바꾼 이대훈... 왜?

친근함 상징 ‘뽀글 파마’서 ‘웨이브 파마’로... 고객의 ‘스타일 변화’ 조언 수용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28년간 고수하던 ‘파마 머리’에 최근 변화를 줬다. 이유는 단 하나, 고객의 조언이다. 영업통다운 ‘고객 퍼스트’ 마인드에서 우리나라 결정이다.

이대훈 행장은 16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만난 고객님이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미용사를 바꿔보게 어떻겠냐는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며 “지난달 추천받은 미용실을 찾아 스타일에 약간의 변화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 반응은 반반인데 당분간은 이곳

을 다니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객이 강추하는 미용실이라면 믿고 맡겨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행장은 고객의 조언을 잊지 않고, 용산구 단골 미용실이 아닌 마포구로 향했다. 새로운 미용사의 제안으로 트레이드마크였던 ‘뽀글커리는 파마’는 ‘부드러운 웨이브 파마’로 바뀌었다. 고객들과 임직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파마 머리 스타일은 고집했지만 좀 더 두꺼운 롤을 맡아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나오게 연출한 것이다.

이 행장에게 미용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

다. 그는 팀장 시절부터 차별화를 위해 한 달 반마다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맡았다. 그의 ‘뽀마’는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무기다. 이 행장의 페이스북에는 “뽀마하시는 미장원이 어딘지 공유해 달라”는 댓글이 달리곤 했다. ‘영업통’ 이대훈 행장에 게 일선 현장을 뛰어나다며 선보인 미용실 영업은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다.

이 행장은 13일 일과를 일찍 마친 후 영업 1등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도 깜짝 등장했다. 그는 이날 13~14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진행된 NH 베스트뱅크 연수

저녁자리를 찾아 50명의 후배 직원들과 호프 미팅을 즐겼다. NH베스트뱅크는 전국 1만3000여 명 직원 중 펀드, 외환, 신용카드, 신탁, e-금융 등 연간 실적이 뛰어난 직원들로 ‘영업왕’이라고 불린다.

이번엔 정장을 벗고 캐주얼 복장으로 변신하며 디지털 영업에도 힘쓴다. 이 행장은 다음 달부터 양재동 NH디지털혁신캠

퍼스에 입주일에 한 번 자유로운 차림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입주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디지털 혁신에 속도감을 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캠퍼스는 출퇴근 자율시간제를 도입하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청바지 허용 등 근무 복장을 자율화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물관리 일원화로 대한민국 물 안전·물 복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실현하겠습니다.

# “숨만 쉬고 7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집 마련”

## 국토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수도권 두 가구 중 한 가구만 내집 주택마련 소요 연수 5년째 제자리 전·월세 가구 58% “2년 전에 이사”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 “대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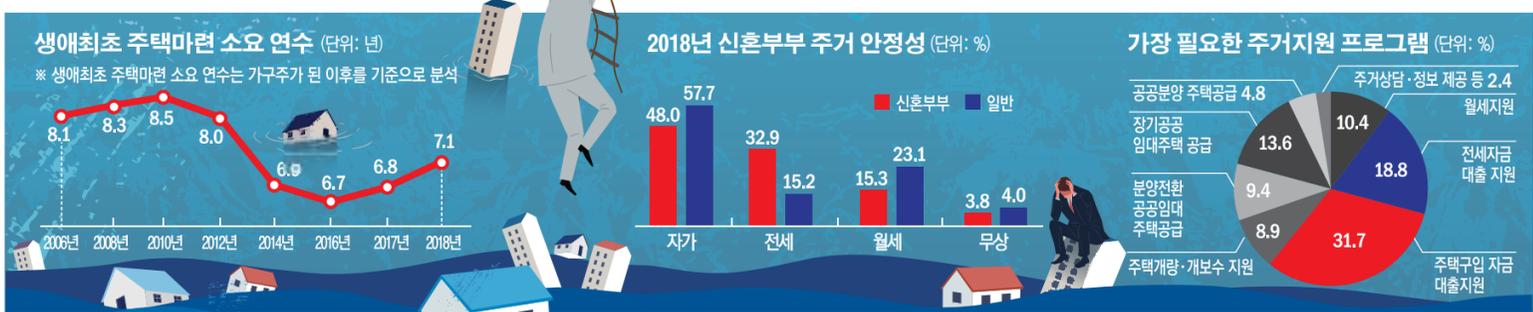
수도권 2가구 중 1가구는 내집에 살고,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을 모아야 내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 면적도 지난해 31.7㎡로 2년 전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 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가점유율은 2018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2017년에 이어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에 비해 소폭 상승(광역시 제외)했지만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은 49.7%→49.9%, 광역시 등은 60.3%→60.2%, 도지역은 68.1%→68.3%로 각각 변동을 보였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61.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모든 지역에서 2017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8%),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2017년(5.6배)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도권이 6.9배로 광역시 등(5.6배)과 도지역(3.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조사기간(2018년 6~12월) 감안 시 9·13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집값 안정효과는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

는 월 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5.5%(중위수)로 2017년(17.0%)에 비해 하락했으며 수도권에서는 18.6%로 광역시 등(16.3%)과 도지역(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의 경우 2018년에 7.1년으로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014년 이후 7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1년 전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자가가구는 10.7년을 거주하며 임차가구(무상 제외)는 3.4년 거주하고 지역별로는 도지역(10.2년), 광역시 등(7.4년), 수

도권(6.3년) 순이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6.4%며 자가가구는 21.7%, 임차가구는 58.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0.6%)에서 광역시 등(35.5%), 도지역(30.6%)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1.1%), ‘직주근접’(31.0%), ‘주택 마련을 위해’(28.1%)와 같이 자발적 이동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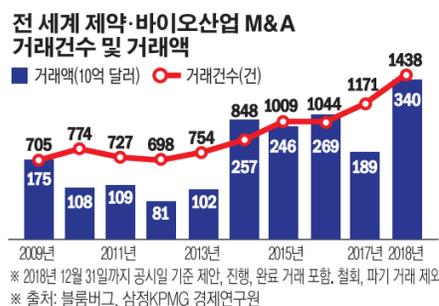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 이후 5~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8

년(5.7%, 111만 가구)에는 2017년(5.9%, 114만 가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31.7%), ‘전세자금 대출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등 순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 및 전세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월세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한국 제약·바이오 M&A 최근 순위**

연도	거래건수(건)	순위
2016년	26	11
2017년	31	10
2018년	41	11

연도	거래액(만 원)	순위
2016년	20억9000	12
2017년	5억3200	19
2018년	20억2000	16

## 韓, 신약기술 경쟁 구경만 하나

작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M&A투자 400兆... 한국 11위 담보

### 삼성KPMG 보고서

지난해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진행된 인수합병(M&A) 규모가 400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거래 건수 기준 11위로, 담보 상태에 빠졌다.

16일 삼성KPMG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진행된 M&A는 총 1438건, 거래액은 3396억 달러(약 400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최대치다.

삼성KPMG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 가능성이 큰 차세대 신약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M&A 거래를 활발히 했다”고 분석했다.

북미 기업들과 글로벌 제약사가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 M&A를 주도했다. 미국 기업이 참여한 M&A가 6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323건)와 중국(224건), 영국(93건)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거래액 기준으로도 1171억300만 달러로 1위였다. 영국(1133억9300만 달러), 일본(879억1800억 달러), 스위스(280억3700만 달러)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은 41건으로 11위를 차지했다. 2016년 11위(26건), 2017년 10위(31건)에 이어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20억2000만 달러로 16위를 기록했다. 2017년 5억3200만 달러, 19위보다 올랐으나 2016년 20억9000만 달러, 12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대형 M&A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SK의 미국 바이오·제약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램팩 인수(8000억 원) 등을 제외하면 대규모 M&A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반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 딜’을 진행했다. 일본 다케다 제약의 영국 사이어 인수 금액은 80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크로스보더 M&A는 활발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 세계 제약·바이오산업의 크로스보더 M&A 건수는 565건으로 전년 대비 54% 성장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거래액에서도 크로스보더 M&A가 19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자국 내 M&A(147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과 이종산업 간 M&A 건수는 966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 중 67%를 차지했다.

삼성KPMG 제약·바이오산업 M&A 리더 고병준 상무는 “한국도 적극적인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인생금융파트너  
**삼성생명**

# 제 1회 전국 탁구클럽 대축제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화합의 대축제**

함께하는 운동, 행복한 생활! 생활체육 동호인과 함께합니다

충청호남권 6월 15일(토) 대전 대 맥 센터

서울권 7월 6일(토) 서울잠실체육관

경기강원권 7월 13일(토) 서수원칠보체육관

영남권 7월 21일(일) 부산강서체육관

\* 권역별 입상팀 대상 왕중왕전 개최 예정(하반기)

주 관

**시·도탁구협회**

후 원

**KTTA**  
대한탁구협회

주 최

**삼성생명**

# KDI “노동생산성 제고 없으면 2020년대 성장률 1%대”

“경제성장률 둔화, 일시적 침체보다는 추세적 하락 가능성”  
기업 규제지수 개선 안 돼... 끊임없는 혁신해야 2% 성장  
경기부양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 반복 시행 땀 재정 부담”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생산효율성 측면의 제반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0년대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와 장기전망(권준호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국내총생산(GDP) 중 노동생산성(취업자1인당 부가가치) 기여도는 1990년대 5.2%포인트(P)에서 2000년대 3.1%P, 2011년 이후 1.6%P로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배경은 그 바탕이 되는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GDP 기여도 하락이다. 여기에서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변화 등 경

제 전체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주요 요소로는 국제무역 자유도, 법제·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이 있다.  
물적자본 기여도는 1990년대 3.8%P에서 2000년대 1.9%P, 2011년 이후 1.4%P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2.0%P에서 1.6%P, 0.7%P로 줄었다.  
보고서는 “경제가 성숙단계로 접근하면서 물적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둔화하는 것은 일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자체가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 부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제도 등 제

반 여건과 내외수요 의존도가 크다.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자유도지수(0-10)는 1990년 7.4, 2000년 7.2, 2010년 7.6, 2016년 7.6으로 정체돼 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7개국(G7)의 국제무역자유도지수 평균은 8.0이었다. 법제·재산권 보호와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지수도 2010년대 들어선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디고 교역량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등 대외수요도 둔화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2011-2018년 연평균 3%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

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문다면 경제 성장률은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을 2%대 초중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5월인데... 벌써 덥네” 16일 서울 중구 롯데하이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시민이 진열되어 있는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 서울레이터 등 냉방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 3D 프린팅·IoT 전용몰 생긴다

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확정  
기업 조달시장 진입 간소화  
신약 등 특허 우선 심사 대상

연말까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이 생긴다. 또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9개 분야가 특허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 전용몰을 개설해 기술혁신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혁신제품 전용몰이 개설되면 조달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89일에서 50여 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7개 분야에 혁신 신약과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신재생에너지,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특허 등록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약 11개월가량 단축한다.  
정부는 IoT 융복합 제품의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온 규제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CCTV 기반 설비로 한정돼 있던 것을 레이더 센서(전자파)도 허용한다.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 외에 레이더 센서(전자파) 기반 설비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레이더센서 기반 설비는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인해 CCTV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로 감지·분석한 뒤 해당 정보를 IoT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IoT 기반 그림자조명 광고를 인도에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그림자조명은 빛을 이용해 문구나 이미지를 바다 또는 벽면에 투사하는 것으로 날씨나 미세먼지, 공공광고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IoT, 3D 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분야에서 총 36건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전국 광공업생산 2.1% ↓ ... 인천 10.3%·서울 7.6% 폭

통계청 ‘1분기 지역경제 동향’  
기계장비·화학제품 부진 영향  
서비스생산 울산·강원 외 증가

1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감소 폭이 10.3%까지 확대됐고, 서울과 경기 등은 전 분기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 분기 4.3% 증가에서 2.1% 감소로 전환됐다. 인천의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서울(-7.6%)과 경기(-6.7%), 전북(-7.6%)은 전 분기 증가에서 큰 폭의 감

소로 돌아섰다. 충남은 감소 폭이 전 분기 0.2%에서 8.4%까지 확대됐다. 기계장비와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부진했던 탓이다.  
0.9% 증가한 서비스업생산은 울산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울산과 강원은 각각 1.8%, 0.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울산 -7.7%, 강원 -7.0%) 부진이 주된 원인이었다. 전북은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이 6.0% 감소하며 0.1% 증가에 그쳤다.  
소매판매액은 증가 폭이 지난해 2분기 5.0%, 3분기 3.8%, 4분기 3.0%, 올해 1분기 1.7%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대체로 서비스업생산이 부진한 지역에서 감소 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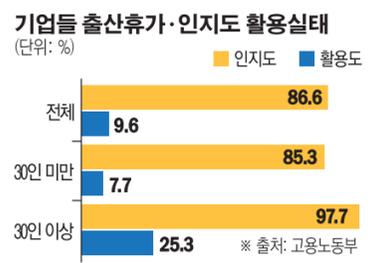
건설수주는 지난해 4분기 ‘깜짝 반등’에서 다시 감소(-9.4%)로 돌아섰다. 부산(-61.2%), 세종(-78.8%), 강원(-88.4%), 경남(-59.7%) 등에서 급감했다. 대체로 철도·궤도, 기계설치 등에선 늘었으나 발전·송전, 주택, 사무실·점포 등에서 줄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8.5%, 6.8%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소비자물가는 0.5% 상승했다. 서비스물가가 1.3% 올랐지만, 상품물가가 0.4% 내렸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에서 0.1% 하락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출산휴가제도’ 활용 기업 10곳 중 1곳

기업 규모 작을수록 활용도 낮아  
사업체 75%는 도입조차 안 해

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0곳 중 1곳으로 집계됐다. 30인 이상 기업의 활용도는 25.3%인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7.7%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진행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86.6%였으나 활용도는 9.6%였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알고 있지만 충분히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였으며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23.5%였다. 활용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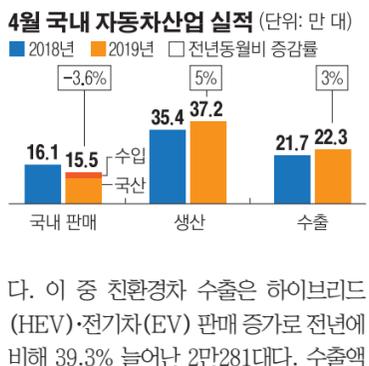


없는 이유로 ‘제도 미도입(74.9%)’을 꼽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체에 출산 여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업체의 인지도는 57.1%, 활용도는 3.9%였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인 데 반해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절반 수준인 47.5%로 사실상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체도 많았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지난달 자동차 수출 작년보다 3% 증가

SUV·친환경차 판매 호조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22만3235대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북미, 유럽 등에서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



도 전년보다 5.8% 증가한 3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보다 3.6% 감소한 15만5027대였다. 이 중 국산차 판매(13만5538대)는 개별소비세 인하(30% 감면)와 팰리세이드, 쏘나타, 코란도 등 신차 효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수입차 판매(1만9489대)는 벤츠, BMW 등의 판매 부진으로 28.3% 줄었다. 이로 인해 전체 내수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12.6%)도 전년보다 4.3%포인트(P) 감소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

“저성장·일자리 등 해결 시급... 자영업자 어려움 아픈 부분”

##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개최해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세종시에서 한 것은 세종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해 “혁신적 포

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은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원 배분 우선순위와 관련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 강구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 비핵화 협상 돌파구 여나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하순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후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4·11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했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 조기 남북 정상회담 北 압박 개성공단 재개 등 새 카드 주목

비핵화 협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북한은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북미의 대결 양상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한 달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이례적으로 알린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알려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여지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일 정상이 몇 달 사이에 세 차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한미동맹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의미가 있다. 또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대북 식량지원 이외에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 완화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방한 때 안개 때문에 취소됐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재추진해 양국 정상이 비핵화 대화 재개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달여 남은 기간에 여러 협의를 통해 어떤 일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비핵화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개성공단 재개 등 진전된 카드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경색된 북미·남북 관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동민 기자 lawsd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차를 마시며 얘기 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부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

# 美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옮겨야”

## 평택 이전 땀 전작권 美가 주도권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군사령부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해왔다”며 “미군 측은 용산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보다는 평택기지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 이전 문제는 미군 측과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안이며 현재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해부터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연합사 이전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유력 후보지로 국방부 영내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후보지로 거론된 국방부 영내 합동참모본부 청사등을 둘러본 뒤 당초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가족 거주 숙소를 서울에 마련하기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연합사가 여러 건물에 분산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평택기지 이전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사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까지 전작권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미국 관할 지역 내에 연합사가 있어 미국의 주도권이 여전한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전작권 전환 시 국방부가 합참의장에게 연합사령관을 겸임하게 하려고 한 애초 계획이 물리적 거리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한국과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황교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가는 게 도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가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려움이 있어도 광주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질타가 있으면 듣겠다. 피하는 것보다는 가서 듣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5·18 피해자들의 아픔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 망언’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되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전가족보험**  
완전보장

당신의 모든 순간에  
가족 모두의 순간에  
**한화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더 나은 나를 찾을 수 있게  
가족의 행복을 더 지킬 수 있게

**더 잘 살기 위해**  
Life as a service

**한화손해보험**

Lifepi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Lifepius 광고모델 이병현

# 中 통신장비업체 봉쇄하며 무역협상 압박 트럼프 '화웨이 두 토끼 전략' 통할까

미국내 사업비중 적어 실효성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과 경쟁사인 ZTE 등 중국 통신 관련 기업이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 기업이 안보 위협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나 그 계열사와 거래하려면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는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차단하게 됐으며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화웨이는 시진핑 중국 정권이 중점 육성하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과 규제

2018년	2019년
1월	1월
2월	2월
5월	3월
7월	4월
8월	5월
12월	

는 첨단 분야 핵심 기업이며 5G 특허 출원 수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트럼프가 무역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중국의 급소를 찌른 셈이다.

화웨이는 16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5G 구축이 지연되게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며 엄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WSJ는 화웨이와 ZTE 모두 미국 내 사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Barack Obama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시장 진입을 강력히 막아 와 중국 장비는 미국 통신망의 1% 미만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화웨이는 미국에서 약 2억 달러(약 23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1070억 달러에 비하면 '새 밭의 피' 수준이다.

문제는 화웨이의 미국 사업 대부분은 농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소규모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사업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미국 농촌 지역 통신사업자들은 장비 교체로 1400만~5700만 달러의 애먼 비용이 들 수 있다.

ZTE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미국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이 15%에 달했지만 작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면서 점유율은 2%까지 떨어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미국産 부품 中에 팔지 말라니” 한국·일본 등 동맹국 안절부절

美 눈치에 수출길 막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 봉쇄라는 초강수를 둔 건 일본, 한국, 유럽 등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니혼게이지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산 부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들만 화웨이와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들에 차세대 이동통신 5G 인프라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라고 요구해왔다. 신문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은 물론 동맹국들까지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신문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나 전자부품 회사들의 수익 가운데 중국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18년 화웨이가 소니, 파나소닉, 무라타, 교

세라, TDK, 재팬디스플레이, 스미토모전기공업, 도시바메모리 등 일본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한 규모는 총 60억 달러(약 7조 1490억 원)에 달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수출길을 사실상 봉쇄하자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반등 하루만에 하락 반전, 심리적 지지선인 2만1000까지 밀렸다. 전자부품주 등 관련 종목의 매도세가 강해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LG유플러스도 서울, 수도권 북부, 강원 지역의 이동통신 시설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화웨이는 또 한국전력의 고성능 전국망 구축,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백분방 사업 등을 수주했다.

한편에선 화웨이에 대한 매출 감소 영향이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화웨이 제품 생산이 떨어지는 대신 대체 수요로 다른 제조업체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이상 동맹국이 미국 측 요구를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힐러리와 베이조스... 의외의 투샷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엘리스섬에서 열린 '자유의 여신상 뮤지엄' 개관식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들 외에 베이조스 CEO의 아버지 미구엘 베이조스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오프라 윈프리 등 민주당 지지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뉴욕/AP연합뉴스

## 무역전쟁 보복? ... 美국채 내다 파는 中

보유 잔액 2년 만에 최소화

무역 마찰 속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하고 있다. 중국의 3월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이 전월보다 104억 달러 감소한 1조1205억 달러(약 1333조 원)로, 2017년 5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재무부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잔액이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3월에 미국 국채를 204억 달러 순매도했는데 이는 2016년 10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중국의 최후 보복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초 중국 관리들이 미 국채 매입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채권시장이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편 3월은 시점 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관세 인상으로 맞서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기 전이어서 이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대부분은 중국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실제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면 미·중 관계가 수렁에 빠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잔액 추이



져 양국 경제도 침체될 위험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선택은 매우 위험이 높은 협상 카드로 '핵무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다만 보복 의도가 없더라도 관세 인상으로 중국 수출이 둔화하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힘이 떨어지게 돼 미 국채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은 최근 수년간 일본 국채에 투자하거나 개발도상국 개발 지원에 돈을 푸는 등 대외 자산 운용을 다변화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태국 부동산개발지수 추이



## “알짜배기 미분양 아파트 줍줍” 현금부자 ‘기회의 땅’ 된 태국

태국의 수도 방콕에 주인을 찾는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다. 태국 경기가 침체된 데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엄격해진 탓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태국에서 집을 찾고 있다면 당신에게겐 45만 개의 선택지가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영국 부동산 정보 업체인 나이트프랭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콕에 새로 공급된 아파트는 약 6만5000채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수치로, 한 해 공급량으로 따지면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반면 수요는 둔화해 구매비율이 55%에 그치면서 평균 매매가는 전년보다 6% 하락했다.

태국 전역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45만 4814개의 주택이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자산 규모로 따지면 410억 달러(약 48조8500억 원)에 달한다. 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어버리며 부동산 시장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재무부는 지난해 태국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발효되면서 매물 소화 능력은 더 떨어졌다. 태국 부동산 시장의 '큰손' 역할을 해오던 중국 투자자들이 당국의 자본 유출 규제로 발길을 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주택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부동산 세일을 시작하면서 현금부자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건설업 업체 CBRE의 알리와 사 팡나다부르 이사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활기가 없었지만, 여전히 좋은 위치와 가격을 가진 매물을 매수할 기회가 있다”며 “시장이 현실적인 가격 수준으로 조정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이트프랭크 역시 이미 계획돼 있는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도시를 재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트프랭크의 프랭크 칸 태국 책임자는 “나는 지난 15년 동안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말을 열 번도 넘게 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터지지 않았다”며 “최근의 과잉 공급 및 가격 하락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슬기 기자 seulkee@



신라금관

고려청자

금속활자

훈민정음

SK하이닉스 반도체



# 선조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를 만듭니다

시대를 선도했던 선조들처럼  
SK하이닉스도 첨단 반도체로 세상을 이끌어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열정과 도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자격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 접수기간 | 2019.5.1 ~ 2019.7.19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nix.com)

# 건강증진 보험 개발 물꼬 텃지만... 의료법 개정 '하세월'

## 금융위, 보험사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 허용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보험회사의 건강측정 기기 제공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관련 상품 개발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정보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 허용과 관련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설계사가 직접 (기기를) 들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더 알리고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험사는 기기 제작업체와 제휴를 맺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접 형식으로 고객에게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 개선에서 보험업법에 규정된 '3만 원 이상 특별이익 제공 금

의료정보 활용 유권해석 못 내려  
맞춤형 보장 강화 사실상 불법  
병원은 보험사 연계 사업 거부  
"법 개정 없인 반쪽짜리 개선"

지' 규정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건강측정 웨어러블 기기는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험사 건강증진형 상품도 걷기와 앱을 통한 단순 측정 데이터에 머물러 있다. 삼성화재는 당뇨 환자를 위한 '마이헬스노트' 앱과 걷기 앱 '애니핏' 등을 운영 중이다. 신한생명도 스타트업과 연계해 치아상태 측정기기를 활용한 '잠중은덴탈케어' 상품을 판매 중이다.

문제는 의료법과의 충돌이다.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은 의료법 유권해석

### 건강증진형 보험 관련 쟁점 법안

#### 보험업법(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

(현행)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한해 예외 규정 적용으로 개정 가능성

#### 의료법(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현행) 2018년 9월부터 민관 합동 법령해석위원회서 유권해석 중.



이 늦어져 지지부진하다. 건강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사용이 활성화되면 보험사는 고객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특정 수치나 부위가 안 좋으면 해당 부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유권해석 없이는 모두 '불법'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질병 이름을 명시해

홍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의료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개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보험업계의 의료정보 활용 허가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의료행위 범위 규정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의료법 해석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 사업도 거부하고 있다"며 "건강검진과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협업으로 '원-원'이 가능한데 다 막혀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보험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보험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보험에도 적용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보험연구원원이 펴낸 '인슈테크 혁명 :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매일 대소변을 분석해 의사에게 전달하는 스마트 변기와 규칙적인 양치질을 체크하는 스마트 칫솔 등이 개발돼 활용 중이다.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AI) 연계 스마트 안전 조끼와 헬멧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고 있다. 또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와 위치 추적 등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보험에도 이용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인슈어테크 활용... 보험산업 신성장동력 마련"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판매채널 혁신·소비자 보호  
당국에 대안 제시 역할 집중"



케어 서비스,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위험관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된 경영자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도 다룰 방침이다.

또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자본규제, 예금보험제도,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그는 "자본규제와 관련해 금융 안전성을 달성하면서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판매 채널 면에서는 설계사의 법적 지위 변화, 채널 포트폴리오 등 미래 판매 채널 전략을 주요 연구로 다룰 예정이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옴부즈맨 등의 제도도 수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안 원장은 △연구원 영향력 제고 △연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연구로 전환 △연구 네트워크 강화 △조직 재정비 등 5가지 경영 방침을 정했다.

안 원장은 보험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부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달 5일 제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서지연 기자 sjy@

## 은행 대출 연체율, 3개월 만에 하락세

(3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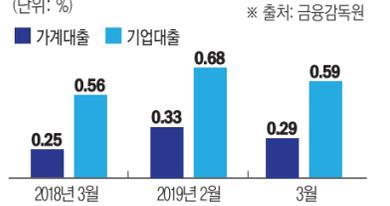
전월비 0.06%p 떨어진 0.46%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석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말(0.52%) 대비 0.06%p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0.42%) 대비로는 0.04%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2개월 오름세를 꺾고 하락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1·2월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74%로 전월 말(0.75%) 대비 0.01%p 내렸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0.66%) 대비 0.10%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 말(0.42%) 대비 0.05%p 감소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0.33%) 대비 0.04%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0.23%) 대비 0.01%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0.56%) 대비 0.11%p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연동기 알림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시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 메모리 불황에도 '파운드리' 출발 좋다

우리나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3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 DB하이텍이 올 1분기에 실적과 기술개발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메모리 시장의 슈퍼 호황이 꺾이면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사업인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대대적으로 육성키로 한 비메모리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 선두 TSMC를 맹추격 중이고,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와 DB하이텍은 1분기 호실적을 내놨다.

16일 SK하이닉스가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파운드리 전문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1분기 매출 1529

**1분기 '반도체 위탁생산' 삼총사 삼성, 글로벌 점유율 4%P 확대 중 공장 짓는 SK 매출 300억 ↑ DB하이텍도 영업이익 76% 경증**

**"美·中 수주 늘어 공장 풀가동"**

억 원, 순이익 123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전 분기(128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매출은 전 분기(1222억 원)보다 307억 원 늘었다.

SK하이닉스에서 분사해 파운드리 사업을 맡고 있는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출범 첫해인 2017년 77억 원의 순손실을

낸 뒤 1년 만에 영업이익 60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예상보다 빨리 흑자 경영을 이뤄내 기대감을 키웠는데, 올해 역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의 주력 제품인 200mm 웨이퍼 아날로그 반도체는 스마트폰 외에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가상 현실(VR) 제품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중국 우시에 현지 합작사를 설립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파운드리 사업의 가장 큰 수요층이 중국 시장이란 점을 고려한 결과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은 수익성 기반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며 "업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DB하이텍 역시 올 1분기 매출 1596억 원, 영업이익 224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5%, 76% 증가한 실적을 내놨다. 미국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칩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게 호실적의 배경이다. 또 고전력 파워소자, 미세전자제어기술(MEMS)센서 등 신규 제품의 양산도 1분기에 본격화됐다.

DB하이텍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충북 음성에 있는 양 팹 모두 풀가동되고 있으며, 당분간 현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격적 파운드리 기술 혁신에 나서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라라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

럼'을 열고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고객사에 차세대 '3나노 GAA'의 공정 설계 키트를 배포했다. GAA는 현재의 3차원 입체 구조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공정인 '핀펫' 이후 미래 시스템 반도체의 구조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반도체 기술로 꼽힌다.

시장 점유율에서도 TSMC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TSMC의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 빠진 48.1%에 그쳤다. 반면 삼성전자는 19.1%로 3개월 새 4%포인트 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TSMC를 맹추격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서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세계 TV 10대 중 3대는 삼성

**점유율 사상 첫 30% 돌파 눈앞 대형 시장 성장...1분기 29.5%**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3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6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TV 시장점유율(금액 기준)은 29.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 20.1%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난 규모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0%를 넘어선 뒤 2017년 26.5%, 2018년 29%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 최고 성적은 지난해 2분기 점유율 29.7%다.

삼성전자는 QLED·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로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최근 TV시장은 고해상도 대형 화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

면서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 세계 TV 수요는 2억2100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 성장했다. 올해 60인치 이상 대형 시장은 약 1900만 대를 초과해 전년 대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75인치 이상 초대형 시장도 85%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형 사이즈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중소형보다는 대형 제품 라인업을 늘리는 한편, 대형 제품에 적합한 QLED 8K TV 등을 빠르게 상용화해 강조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TV 시장은 스포츠 이벤트가 없는 경우 대체적으로 2~3분기에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가 4분기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올해 1분기 신제품 효과로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해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TV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연간 시장 점유율 30%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삼성, 유럽 첫 8K 위성방송 시연

삼성전자는 1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위성방송 사업자 SES 아스트라(Astra)와 함께 유럽 최초로 8K 위성방송 송수신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시연은 8K 초고화질 영상을 SES 아스트라의 위성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8K TV로 수신해 방송하는 형식이였다.

이 방식에서는 기존 위성방송 송출 장비와 수신용 접시 안테나, QLED 8K TV에

내장된 기본 수신기(튜너) 등을 그대로 활용할 뿐, 8K 방송을 위한 별도의 장비를 추가하지 않았다.

삼성 QLED TV에 탑재된 수신기는 현재 유럽, 한국 등에서 HD급과 4K UHD급 위성방송에 활용되는 전송 규격인 DVB-S2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향후 이 방식이 본격 채택될 경우 8K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르노삼성 임단협 11개월 만에 잠정 합의

**기본급 동결 등 21일 조합원 투표**

르노삼성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이는 협상 시작 후 11개월 만이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4일 오후 2시 열린 28차 본교섭에서 4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16일 오전 6시 20분께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잠정 합의 내용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 지급 및 중식대 보조금 3만5000원 인상 △성과 보상금 총 1076만 원 지급 △근무 강도 개선을 위한 60명 인력 채용 등이다. 성과급의 경우 △생산적

려금(PI) 50% 지급 △이익배분제(PS) 426만 원 △성과격려금 300만 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 원 △특별 격려금 100만 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 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지급된 생산격려금(PI) 300%는 제외됐다. 아울러 근무 강도 개선안에는 인력(직업훈련생) 추가 외에도 △주간중식시간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 △근로격려금 지급 예정인 10억 원 설비 투자 △근무 강도 개선 위원회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제주항공, 베트남 승무원 첫 투입

제주항공은 22일부터 베트남 노선에 베트남 국적 승무원 10명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외국인 승무원을 비행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베트남 여행객은 2014년 14만1500여 명에서 2018년에는 45만7800여 명으로 약 3.2배 급증했다. 제주항공은 인천과 김해, 대구, 무안 등 국내 4개 도시에서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나트랑 등 4개 도시에 주 49회 운항하고 있다.   
사신재용 제주항공

## "펠리세이드 기다리다 지쳤어요" 예약자 10명 중 1명 계약 취소

**"다른 모델로 재계약 많아" 현대차 4월부터 40% 증산**

현대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펠리세이드(사진)의 대기 고객들이 출고 적체 탓에 수개월 차를 기다리다 지쳐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16일 현대자동차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펠리세이드 계약자(누적 6만5000명) 중 대기자 수는 약 3만 명으로 일부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예약자 10명 중 1명꼴로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현대차 A대리점에서는 지난해 11월 펠리세이드 출시 이후 지금까지 40여 명이 계약했으며, 이 중 5명이 계약을 취소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대리점 B의 경우 같은 기간 30여 대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중 2대가 취소됐다.

취소 이유는 차량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포기한 경우가 가장 많다. 대기 기간이 길게는 6개월가량으로 예상되면 기존 차량을 이미 팔고 펠리세이드 출고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불편

을 호소하며 취소 행렬에 올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초, 펠리세이드 월 생산량을 기존 6240대에서 8640대로 40%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 2월 말 노사가 증산 협의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현대차는 이미 지난달부터 증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증산으로 펠리세이드 출고 기간이 3개월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하반기 수출이 시작되면 대기 기간이 빠르게 단축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현대차의 또 다른 모델이나 쌍용자동차 SUV 모델(G4렉스턴 등)로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들어 고급 편익사양을 대거 장착한 새로운 산타페가 출시돼 향후 취소 고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대부분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오랜 고민 끝에 취소를 결정하는 것 같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완성차 업체가 아닌 현대차의 다른 모델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미세먼지 높으면 자동 작동 현대기아차 지능형 공기청정

현대차와 기아차는 16일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정화해주는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은 실내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차량이 스스로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해 열악한 외부 대기환경에서도 최대한 탑승자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적용된 공기청정 기능은 탑승자가 수동으로 작동시킨다. 그러나 이번에 현대차·기아차가 개발한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은 차량 내부의 공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실내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로 떨어지면 '좋음' 단계가 될 때까지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시킨다. 공기청정 기능이 작동될 때 창문이 열려 있으면 자동으로 닫아주는 연동제어도 함께 실행돼 보다 빠르게 실내 공기를 정화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외부 미세먼지 차단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진율을 증대한 고성능 콤팩트 필터도 개발해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기존 94%에서 99%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앞으로 출시되는 신차에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항공업계 UN회의’ 의장 조원태 한진 회장 데뷔전

IATA 서울 연차총회 2주 앞으로  
공정위 총수 지정 후 첫 공식석상  
세계 항공업계 리더 역할 시험대

대한민국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제75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서울 연차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은 연차총회의 의장으로 나선다. 총수 선임 이후 첫 데뷔하는 대외 공식 자리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IATA가 주최하고 대한항공이 주관하는 이번 연차총회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IATA 연차총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업계 회의이자, 명실공히 ‘항공업계의 UN 회의’다. 이 회의에는 각 회원 항공사들의 최고경영진 및 임원, 항공기 제작사 및 유관업체 등 전 세계 각계에서 1000여

명 이상 참석해 국제항공산업의 발전과 제반 문제 연구, 항공산업의 경제성 및 안전성 논의, 회원 항공사들 간 우호 증진 활동을 벌인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 방안 △항후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논의 △항공 여행 촉진을 위한 신기술 적용 방안 등 폭 넓은 의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IATA 연차총회 서울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끈 곳은 대한항공이다. 1989년 1월 국적사 최초로 IATA에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글로벌 항공업계에서의 위상 강화에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연차 총회는 조원태 회장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받은 이후 첫 공식석상에 나서는 것으로 ‘그룹 3세 경영’을 본격화하는 자리이다. 게다가 당초 의장직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부친 대신 의장으로 나서는 만큼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지 주목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연차총회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에 대한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업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관광 인프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관광 붐을 통한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도 전망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 조양호 회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및 조직위원장을 잇따라 맡으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면, 이번에는 아들인 조원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항공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삼성도 ‘자체발광 TV’ 속도

美 나노 소자업체 투자 참여  
QLED 기술 완성도 극대화

삼성전자가 퀀텀닷(QD)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LG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진영에 맞서기 위해 차세대 자발광(EL) QLED TV 출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투자자회사 삼성벤처투자는 최근 미국의 나노 소자 기술 업체 ‘나노포토니카(NanoPhotonica)’가 모집한 350만 달러(약 42억 원) 규모 투자에 참여했다. 나노포토니카는 퀀텀닷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QLED를 위한 물질 및 장치 기술의 업계 선두업체다. 전 세계 주요 디스플레이 및 화학 회사와 협력해 기술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노포토니카 관계자는 “삼성벤처투자가 이끄는 이번 투자는 세계적 수준의 양자점 및 관련 나노 물

질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은 2017년에도 이 회사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서혁신 삼성벤처투자 미국 동부 법인 수석 투자매니저가 작년 2월 이 회사 이사회 멤버로 합류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QLED TV를 앞세워 LG OLED TV 진영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LG 측은 진정한 QLED는 자발광 기술이라며 삼성을 꺾어내고 있다.

실제로 LG전자 OLED TV는 유기물을 소자에 활용해 화소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 반면 삼성 QLED TV는 LCD 패널에 퀀텀닷 필름을 붙여 기존 LCD TV보다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자발광 QLED를 실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번 투자 역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일환으로 풀이된다. 송영록 기자 syr@

# 가전 더 똑똑하게...LG, AI칩 자체 개발

스스로 학습 ‘딥러닝’ 기능 강화  
인터넷 연결 없이 데이터 처리

LG전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로봇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에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칩’을 자체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AI칩은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LG뉴럴엔진’을 내장해 딥러닝 알고리즘의 처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AI칩은 △공간, 위치, 사물, 사용자 등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영상지능’ △사용자의 목소리나 소음의 특징을 인식하는

‘음성지능’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감지해 제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제품지능’ 등을 통합적으로 구현한다. 또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학습해 사용자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고도화한다. 상황을 판단해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AI칩을 적용한 제품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제품 내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향후 LG전자는 AI칩이 적용된 로봇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생활 속 다양한 보장과 케어를 하나로!

☎️ KB The드림365건강보험II



•손해보험협회 심의제 제12125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 손해보험

<기업 PR>

## 중고차 손쉽게 파는 ‘현대글로벌비스 오토벨’

인터넷 신청...원스톱 처리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입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편리한 판매 절차와 투명한 거래를 강점으로 내세워 내 차 팔기 서비스인 ‘오토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의 중고차 매입 서비스인 오토벨은 중고차 방문 평가에서부터 매입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접수 절차도 쉽다. 전용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전문 컨설턴트가 고객에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한다.

또한 오토벨이 중간에서 대금 수령과 명의이전 등록을 비롯한 중고차 거래 관련 부대 업무를 처리한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 간 직거래나 매매업체 거래에 비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지식이 해박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오토벨 이용의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직거래나 매매업체 거래는 자동차 지식이나 차량 시세를 잘 알고 있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현대글로벌비스 오토벨의 매입



가는 현재 현대글로벌비스 경매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고차 경매 데이터를 활용해 정해진다. 중고차는 경매 시장에 출품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매업체에 판매된다. 경매에 참여한 수백 개 매매업체가 입찰가를 제시해 그 중 최고 금액이 낙찰가로 정해진다. 현대글로벌비스 오토벨은 이 경매장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공정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오토벨과 같은 중고차 매입 서비스의 성장은 자동차 경매를 활성화시킨다”며 “오토벨을 통해 매입된 중고차들은 철저한 성능 점검을 거쳐 모두 현대글로벌비스의 경매장(시화·분당·양산)으로 보내지는데, 양질의 중고차가 경매장으로 많이 유입될수록 경매에 참여하는 매매업체의 수도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 120주년

우리금융그룹

즐거는 우리



멈추지 않는 우리



꿈꾸는 우리

도전하는 우리



나답게 우리답게, It's ME It's WE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첫급여우리통장

은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용대출 0.3%  
금리우대 쿠폰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

▶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면제, 쿠폰제공 등)과 제공조건은 상품 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점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9.03.22 준법감시안-0487 심의필(유효기간:2020.02.12)

We Believe 우리은행

# 가구업계, 프리미엄 내세웠지만... 1분기 '우울한 성적표'

가구 업계가 올해 1분기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테리어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업체들은 프리미엄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라앉은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올해 가구업계는 프리미엄에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현대리바트는 2월 이탈리아 회사의 고급 세라믹 타일을 독점 수입했다. 당시 현대리바트는 이탈리아 세라믹 타일 제조 전문기업 플로립의 프리미엄 세라믹 상판을 활용한 '스와레 세라믹 식탁'이 출시 4주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까사미아도 3월 하이엔드 가구 컬렉션 '라메종'을 론칭하며 프리미엄 가구 시장에서 신규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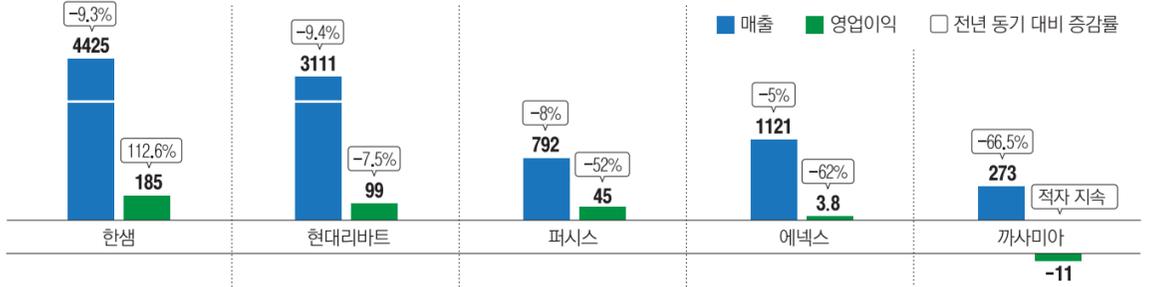
그러나 1분기 성적표는 이들의 포부만큼 밝지 못했다. 양사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이 뒷걸음질쳤다.

현대리바트, 매출 3111억 9.4%↓  
영업이익도 7.5% 줄어든 99억  
까사미아 매출 66.5% '뒷걸음질'  
영업손실 11억... 3분기 연속 적자  
한샘 제외 나머지 업체 대부분 부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리바트의 올해 1분기 매출은 31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든 99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리바트는 "빌트인 등 기업 간 거래(B2B) 신규 사업이 감소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주방가구사업은 상생형 매장 도입 등으로 매출이 7.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까사미아의 1분기 매출액은 27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6.5%나 감소했다. 까사

2019년 1분기 가구업계 실적 (단위: 억 원, 까사미아는 전 분기 대비 증감률)



미아는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1월 인수해 지난해 2분기부터 분기보고서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까사미아는 올해 1분기에도 영업손실 11억 원을 내며 적자를 지속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0억 원, 4분기에는 3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까사미아는 영업 손실과 관련해 "상반기에 세종세류점을 포함해 4개 매장을 새로 열었고, 연내 총 20개 매장 개점을 준비하

고 있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결과"라고 밝혔다.

업계 1위인 한샘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을 빼고는 여타 가구 업체들도 부진한 실적을 내긴 마찬가지다. 한샘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 줄어든 4425억 원이다.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6% 뛰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샘은 "기저

효과와 더불어 신성장동력인 '리하우스 사업' 부분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퍼시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79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 줄었다. 영업이익도 45억 원으로 52% 축소됐다. 에넥스는 1분기 매출액에서 112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 줄었다. 영업이익도 3억8000만 원으로 62% 감소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서지 코마로미 보스플랫폼재단 이사가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리빌딩 보스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재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스플랫폼재단

## 보스플랫폼재단 '보스코인' 과 결별 새 플랫폼 '보스아고라' 개발 발표

보스플랫폼재단(BPF)이 신규 플랫폼 '보스아고라(BOSAGORA·코인명 BOA)'를 개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BPF는 2017년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으로 보스플랫폼 기반의 프로토타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홍보에 목적을 두고,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존 개발업체인 블록체인OS와는 결별한 것으로 설립 당시 추구했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BPF는 설명했다. BPF는 블록체인

### 운영자 합의 통해 생태계 발전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기간 15개월 예상

OS가 개발한 퍼블릭파이낸싱(PF) 플랫폼이 기존 개발 방향과 달라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BPF는 보스아고라가 탈중앙화와 오픈 멤버십 기반의 콩그레스(노드 운영자)가 합의 과정을 통해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BPF에 따르면 백서 1.0의 비전은 코인 보유자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업을 스스로 콩그레스 안에서 제안하고 채택해 공공예산 사용을 결정

한다. BPF는 보스아고라 개발을 위해 개발팀과 외부 기술자문단을 구성했다. BPF는 실시간 분산시스템과 컴파일러 개발 경험이 있는 마티아스 랭(Mathias Lang) 최고기술이사(CTO)를 맡았고, 이더리움 프로젝트 참여 등 전문성 갖춘 글로벌 외부 기술자문단 섭외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BPF는 메인넷 개발을 단계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홀더들의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6월 이더리움 기반 토큰(ERC20)을 발행한 후 내년 독자적인 코인 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스코인 보유자(4월 5일 기준)들에게 1대1로 보아(BOA) 코인을 지급한다.

마티아스 랭 BPF 최고기술이사는 "결제 레이어 개발에 6개월, 트랜잭션 레이어 개발에 6개월, 통합 작업에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PF는 운영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책으로 법인 대표가 재단 이사를 겸할 수 없게 했다.

서지 코마로미(Serge Komaromi) BPF 이사는 "재단과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역할에 집중하며, 기술 개발과 예산 집행 등을 겸할 수 있도록 이사·운영진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해외 흥행돌풍' 탈리온 국내서도 웃을까

태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3위  
'국내 3배' 규모 일본서도 7위  
이달 북미·유럽 내달 국내 출시

게임빌은 MMORPG '탈리온'이 일본과 북미, 유럽에 이어 내달 한국에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빌은 2019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통해 "6월에는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탈리온은 앞서 출시한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도 출시 초반 좋은 반응을 받은 게임인 만큼 핵심 시장인 북미와 유럽, 국내 시장에서도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탈리온은 게임빌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하고 있는 타이틀이다. 지난해 9월 탈리온의 동남아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출시하는 타이틀 모두 순차 출시 전략을 고



수하고 있다. 출시 지역에 맞춘 마케팅과 현지화를 통해 '탈리온'은 동남아 출시 당시 태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3위, 구글 플레이 매출 6위까지 오른 바 있다.

동남아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탈리온은 그해 10월 일본 시장에 진출해 애플 앱스토어 7위, 구글 플레이 9위의 성적을 거뒀다. 일본 모바일게임 시장은 국내보다

약 3배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시장 출시 당시 탈리온은 '커스터마이징'을 중점적으로 마케팅한 데 이어 일본 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게임빌은 탈리온을 이달 중 북미와 유럽 시장에, 6월에는 국내 시장에 각각 선보일 계획이다. 게임빌은 전투 콘텐츠와 성장 콘텐츠를 강화하는 대형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북미·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출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도 사전 예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게임빌 관계자는 "탈리온의 주요 시장 출시와 더불어 올해는 스포츠 라인업 등 게임빌의 주력 장르 신작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탈리온의 성과가 북미와 유럽, 국내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중기중앙회 '중소협동조합 활성화 해커톤' 개최

조합원 등 100여명 참석  
국내외 성공사례 공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6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혁신 성장을 논하고자 '중소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해커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재 주소를 진단하고,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유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쉽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행사를 뜻한다.

이날 행사에는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 컨설턴트(현장), 중소기업연구원(연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의 '협동조합 현장진단 및 발전방향' 발표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이 수석연구위원은 발표에서 협동조합의 위상과 역할 협동조합 현황 △국내외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는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과경기포천지구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 들며, "오늘날 성공적 협동조합들은 R&D·마케팅·물류·금융·IT·HRD 등을 제공하여 대·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포천지구산업협동조합은 공동판매 전시장과 공동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비유

절감, 사진촬영 세트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등 조합 활력 제고에 의미 있는 해"라면서 "성공적인 조합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방조례 제정 필요성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대형마트 1분기 실적 '낙제'... '초저가 실험' 브레이크?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올해 1분기 '낙제'에 가까운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경쟁으로 노마진에 가까운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영업이익이 주춤한 것. 여기에 '통큰치킨'과 '국민가격' 등 각종 미끼 상품을 동원하고도 매출마저 크게 개선되지 못해 초저가 전략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 743억 원을 겨우 작년 동기보다 51.6% 감소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4조 58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었지만, 순이익은 697억 원으로 44.0% 감소했다. 이는 대형마트 부문과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등을 더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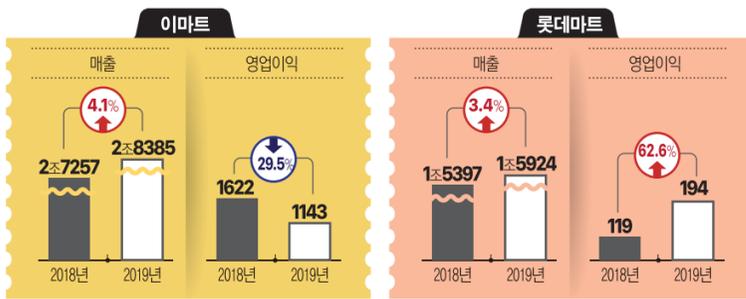
오프라인 대형마트로 범위를 좁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마트 할인점의 1분기 영업이익은 11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5%나 감소했다. 매출은 2조 8385억 원으로 4.1% 증가하는

이마트 영업익 30% 급감하고 롯데마트도 194억 수준 불과 초저가에도 매출 증가폭 미미 "제 살 깎아먹기" 목소리에도 "전략 지속... 하반기 실적 기대"

데 그쳤다. 참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4587억 원과 129억 원을 각각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0.2%, 40.7% 늘었다.

앞서 9일 실적을 공개한 롯데마트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롯데마트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 592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보다 3.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6%나 늘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후폭풍에 따른 중국 점포 실적

대형마트 1분기 실적 비교 (단위: 억 원)



이 반영된 지난해 영업이익 119억 원보다 75억 원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

2월 결산법인으로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홈플러스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의 충격적인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서는 연초부터 벌인 초저가 전쟁이 지목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초저가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국민가격' 프로젝트를 전개하자 롯데마트는 '품격(품질과 가

가) 프로젝트와 '국민가격'으로 맞붙을 났다. 홈플러스 역시 '고기대방출', '쇼핑하러', '가격혁명' 등으로 가세했다.

초저가 전략은 출점 절벽과 고객 감소에 따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철치부심하며 꺼낸 카드다. 할인 상품 구매를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다른 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확실한 '미끼'가 될 것이라는 포석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역마진에 따른 영업익 감소와 미끼 상품만 구매하는 스마트 소비자가 늘면서 낚시 효

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1분기 실적이 나오자 대형마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예상했던 영업이익 부진에 더해 매출 증가 폭마저 미미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둔화되면서 초저가 전략이 제 살 깎아 먹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라면서 "하지만 저가 전략이 있었기에 이 정도 수준으로 방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은 초저가 전략을 계속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려면 저가 상품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이익 개선은 상품 매입 비용을 낮추는 등 원가 절감으로 상쇄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초저가 '국민가격' 상품 출시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2세 경영권 승계 시동 건 BGF그룹

홍석조 회장, 장남 홍정국 부사장에 시간외매매 방식 지분 10% 양도

BGF그룹이 본격적으로 2세 경영권 승계에 나섰다. 주인공은 홍석조 BGF 회장의 장남 홍정국 부사장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GF는 17일 홍석조 회장이 보통주 857만9439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의 변동 후 소유 주식수는 5105만 9215주(지분율 53.54%)로 낮아진다. 같은 날 홍 회장의 부인인 양경희 BGF 복지재단 이사장도 보통주 48만7578주를 매도하며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처분할 예정이다.

홍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리테일 부사장은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906만



홍정국 BGF리테일 부사장

7017주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홍 부사장은 기존 0.82%인 지분율을 10.33%로 끌어올리게 된다. 홍 부사장은 한 살 아래 동생인 홍정혁 상무와 함께 BGF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신사업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홍 상무의 BGF 지분은 아직 0.03%에 머물러 있다.

홍 부사장은 홍 회장의 장남이면서 2017년 10월 단행된 인사에서 부사장

으로 승진해 BGF그룹 후계 구도의 중심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지분 매입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된 만큼 동생에 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홍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만 BGF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거래에 따라 등기이사의 지분율이 상승해 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GF는 편의점 CU(씨유)와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헬로네이처 등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모기업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오스트리아산 아생화 꿀

신세계백화점은 5월 21일 '꿀벌의 날'을 맞아 16일부터 29일 까지 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오스트리아 아생화 꿀(블러썸 허니)로 유명한 '호니마이어'의 즉석 포장 꿀을 판매한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엄선된 양봉장에서 채밀한 아생화 꿀이다. 현장구매 시 생맥주처럼 캔테이너에 따른 후 밀봉하는 재미도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 아모레퍼시픽그룹, 라자다 손잡고 "동남아 e커머스 사업 역량 강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아세안 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e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라자다(LAZADA) 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5일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안세홍 대표이사와 라자다그룹 피에르 포이그먼트 CEO가 만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사는 신규 브랜드 론칭, 온·오프라인 유통을 연계한 신규 통 사업 발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라자다 e커머스 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라자다그룹의 광범위한 e커머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아세안 고객에게 아시안 뷰티의 가치를 담은 혁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아세안 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안세홍 사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라자다그룹이 동남아시아 뷰티 시장에서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세안 고객들을 위한 유통 채널 확대와 고객 경



안세홍(왼쪽) 아모레퍼시픽 사장과 피에르 포이그먼트 라자다그룹 CEO가 15일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그룹

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라자다그룹 포이그먼트 CEO는 "이번 MOU는 라자다의 핵심 카테고리 중 하나인 뷰티 영역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상품과 라자다의 기술이 접목된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 라자다그룹의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라네즈와 이니스프리, 에뛰드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 유통업계도 '○○페이' 경쟁

CJ몰 간편결제 고객 2배 늘어 현대백화점그룹 'H몰 페이' 출시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유통업계가 휴대전화 클릭 한 번이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 '카드 없는' 사회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온라인 쇼핑 시 주로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가 68%로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간편 결제가 22%를 차지했고 현금에는 6%에 그쳤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카드 이용률은 4%포인트, 현금은 2%포인트 줄어든 대신, 간편 결제는 5%포인트 증가해 카드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자가 늘자 유통업계는 관련 서비스 확대에 앞다퉀 뛰어들고 있다.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은 16일 전국 매장에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리브영은 삼성페이, LG페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에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추가했다. 올리브영 측 관계자는 "편

온라인 쇼핑 시 주 결제 수단 비율

※출처: 시장조사 전문업체 컨슈머인사이트

결제 수단	2017년 4분기	2018년 4분기
신용/체크카드	72%	68%
현금	8%	6%
간편결제	17%	22%
기타	3%	4%



리한 간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이번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삼성페이, 페이코 등 10여 종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달 BC PAYBOOC 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BGF리테일 마케팅팀 담당자는 "최근 현금, 카드 대신 휴대가 간편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확대에 매출도 덩달아 상승세다. 이커머스 업계 최대 수준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CJ몰의 경우 올해 1분기 월평균 간편 결제 주문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월평균 간편 결제 주문금액은 2배 가까이 늘었다. CJ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 프로모션에 이어 7월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페이'를 도입하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 후 신규 고객 유입은 늘고, 휴면 고객 수는 줄고 있다"며 "실제 신규 고객 및 휴면 고객 중 간편결제로 쇼핑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모바일 간편 결제 사업에 진출하는 유통업체도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서 관련 사업을 시작한 롯데, 신세계그룹에 이어 지난해 말부터 개발한 간편 결제 서비스 'H몰 페이'를 3월 출시했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현대H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H몰 페이는 상품 결제 시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미리 설정해 놓은 은행 계좌에서 주문 금액이 빠져나간다. 현대백화점 측은 "현대H몰은 현재 모바일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추후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선 기자 only@

# “신약개발 확장성 제고” 플랫폼 기술 힘쏟는 바이오기업

다양한 후보물질 개발해 폭넓은 응용... 시장 선점효과 뛰어나  
셀리드 암치료 ‘셀리박스’·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  
수익 창출 목표로 원천기술 개발 주력...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약바이오 업계의 ‘플랫폼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기술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후보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으로 기술적인 진화와 뛰어난 확장성으로 업계에선 시장 선점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기반이 되는 기술에 여러 종류의 타깃 물질을 바꿀 수 있어 다양한 후보물질 도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에 사용되기 시작한 3D바이오프린팅 플랫폼 기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렙스 커버리’, 종근당의 ‘리퀴드 크리스탈’, 유한양행-제넥신의 ‘hyFc(Hybrid Fc)’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이미 플랫폼 기술을 하나의 개발 축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 최근 성장한 바이오 기업들도 이중항체, 면역세포 등을 이용한 다양한 플랫폼 기술로 무장하고 있다.

올해 2월 상장한 면역치료백신 개발 기업 셀리드는 모든 암세포에 적용되는 셀리박스(CeliVax) 플랫폼 기술로 관심을 끌고 있다.

셀리박스는 개인의 항체와 면역세포들을 능동적으로 활성화하거나 생산하게 해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다. 암세포라고 제 시해주는 항원제시세포를 인체 내 소량으로 존재하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지 않고 B세포와 단구세포를 이용했다. 여기에 면역증강제인 알파-갈락토실세라미드를 탑재해 면역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항원제시세포에 탑재되는 항원원만 바꾸면 다양한 암치료가 가능하다. 현재 자궁경부암·두경부암 적응증 BVAC-C 임상 2상과 위암·유방암 적응증 BVAC-B 임상 1상 등 5종의 항암면역치료백신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이중항체 플랫폼을 소유한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12월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체 결합 구조로 파이프라인 확장과 기존 단일 항체 치료제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이 회사는 모든 타깃을 커버할 수 없는 이중항체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우시바디 플랫폼을 사들였다. 이 플랫폼은

## 신규 상장 바이오기업의 플랫폼 기술

상장시기	플랫폼명	기술내용
2019.2	셀리드 ‘셀리박스’	B세포와 단구세포를 이용한 항원제시세포에 알파-갈락토실세라미드를 탑재해 면역작용을 활성화한 기술. 항원제시세포에 탑재되는 항원원을 바꾸면 다양한 암치료 가능.
2018.12	에이비엘바이오 ‘ABL이중항체+우시바디’	하나의 항체가 두 개의 항원을 동시에 인식하도록 개량한 ‘ABL 이중항체 플랫폼’에 모든 타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바디 플랫폼’을 추가해 모든 단일 클론 항체 서열을 이중 특이적 구조로 조합할 수 있으며 낮은 면역성과 긴 생체 내 반감기, 우수한 안정성을 가짐.
2018.11	셀리버리 ‘TSDT’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로 분자량이 큰 약리 물질들을 세포 내로 침투시킬 수 있는 기술.
2018.11	티앤알바이오옴 ‘3D바이오프린팅’	인공지지체, 장기유사체, 3D세포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며 오가노이드, 패치형 세포치료제, 인공 혈관 등을 개발 중.

모든 단일 클론 항체 서열을 이중 특이적 구조로 조합할 수 있으며 낮은 면역성과 긴 생체 내 반감기, 우수한 안정성을 자랑한다. 강력한 이중항체 플랫폼 장착으로 회사는 효능과 생산성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23개의 파이프라인으로 면역항암제, 신생혈관 억제제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술 이전 계약은 6건으로 모두 1조 3000억 원의 계약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성장성 특례 1호로 상장한 셀리버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플랫폼 기술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셀리버리의 플랫폼 기술은 신약개발 원천기술인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 ‘TSDT’다. 최근 2년여 심사 끝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돼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되기도 했다. 이 회사의 TSDT 플랫폼 기술 및 이를 적용한 세포막 투과 펩타이드 aMTD는 유럽연합 27개국 포함 전 세계 주요국 33개국에 특허 출원되었으며, 이 중 가장 심사가 까다롭고 등록이 어려운 미국에서 지난달에 특허 등록이 성공한 바 있다.

3D바이오프린팅 플랫폼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티앤알바이오옴은 3D바이오프린팅 플랫폼으로 인공지지체,

장기유사체, 3D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공각막 제작 성공 소식이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현재 티앤알바이오옴은 3D바이오프린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 패치형 세포치료제, 인공 혈관 등 재생의학에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티앤알바이오옴 관계자는 “올해는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1~2개 제품에 대해 전임상 연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 바이오업계의 플랫폼 기술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 리스크 최소화, 다양한 신약개발 환경조성 등 플랫폼 기술의 장점이 알려진 가운데 신약개발 연구 과정에서도 플랫폼 확장까지 염두에 두게 된다”며 “캐시카우 극대화를 위해 플랫폼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제약바이오 기업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플랫폼 기술은 산학연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이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신규 상장 바이오기업들의 플랫폼 기술 보유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기술 발달이 의학 발달보다 몇백 배 빨라”

# 의료 AI, 성공사례 발굴·전문가 양성 급선무

AI 헬스케어 매년 60% 급성장  
국내 투자·인재 풀 선결 과제

‘AI 의사’가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알파고’ 제조사 딥마인드(DeepMind)가 복잡한 안구질환을 실시간으로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의사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16일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설리번에 따르면 의료 AI 시장 규모는 2014년 7120억 원에서 2021년 7조478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I 헬스케어 산업은 전체 AI 시장의 다양한 응용 분야 가운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60.3%로 전망된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의료 AI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뷰노(Vuno)’, ‘루닛(Lunit)’ 등 대표적 의료 AI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세계시장에서 인착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외국에서 평가되는 메디컬 AI 기업평가에서는 상위권 진입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다른 국내 의료 AI 기업들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날개를 펼치기에는 아직 투자 미비, 전문가 부족, 국민인식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김광준 세브란스 차세대정보화사업추진담당(노년내과)은 “의료 AI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미국은 미래가치가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되면 많은 투자가 이뤄져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반해 국내는 아직 이렇다 할 레



김광준 세브란스 차세대정보화사업추진담당



임형택 싱가포르 국립 인공지능 연구소 교수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

퍼런스가 없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업 이후 죽음의 계곡(데스 벨리)을 넘기지 못해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 AI가 세계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사례 마련’,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등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싱가포르 국립 인공지능 연구소 임형택 교수는 “구글이 AI공부 모임인 ‘머신러닝 스터디 잼’을 국내에도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런 IT 대기업들의 독점이 우려가 된다”며 “학계에서는 산학연구를 주도하고, 기업들은 의료인재 영입을 적극 추진해 국내 의료 AI를 주도할 수 있는 인력풀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내 AI 기업들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나올 경우 국내 의료 AI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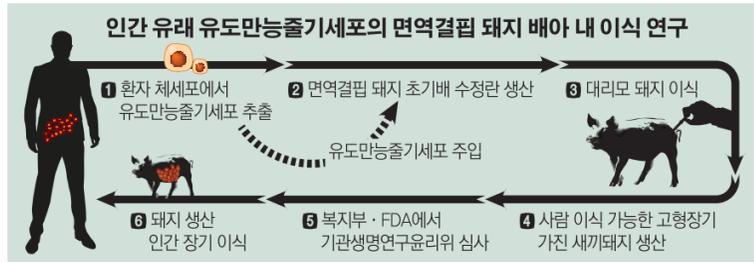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초기 세계시장 진입에 성공한 루닛이나 뷰노가 생각보다 기업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국내 메디컬

AI 기업들은 뷰노와 루닛 등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국내 기업들의 성공도 배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생태계 조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세계적인 성공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 AI 생태계 조성은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의료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기술의 발달은 의학발달에 비해 몇백 배 빨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AI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라며 “연구 프로세스별 인재 풀이 구성돼 좋은 제품이 나오고 의사가 사용하면서 환자도 공감하고 새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 조성이 이뤄져야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의료 AI 전문가 양성’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혁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출처: 건국대학교

## “돼지 이용 인체 이식용 장기 생산” 건국대 ‘줄기세포 이식 연구’ 승인

IRB 심의 통과...세계 첫 성공 기대

사람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돼지에게 주입해 인체 이식용 장기를 생산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 추진된다.

건국대학교 인간화돼지 연구센터는 ‘인간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간면역 체계를 가진 돼지 생산’ 연구가 최근 대학 내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용 돼지(메디 피그)의 몸 안에서 사람에게 이식 가능한 조직과 장기를 생산하는 연구로, 성공하면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이 연구는 면역결핍 돼지의 수정란 초기 배(8세포기~배반포)에 사람의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주입한 뒤 대리모 돼지에 이식해 새끼 돼지의 몸에서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한 간, 신장 등 고형 장기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다자란 피부세포 등을 이용해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분화능력을 가진 원시 상태로 되돌린 줄기세포를 말한다. 사람의 난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기는 ‘키메라(chimera) 장기’ 연구로도 불린다. 현재까지 이종 간 키메라 연구는 2017년 미국 연구자들이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돼지 키메라 배아 생산에 일부 성공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전부다.

국내에서는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이 돼지의 체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해 당뇨병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추진 중이지만 법률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의 관건은 면역이 결핍된 돼지에서 사람의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센터에서 2014년 자체 생산에 성공한 면역결핍 돼지를 연구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 돼지는 면역세포 발달에 필수적인 재조합활성유전자(RAG2)와 인터루킨2 감마수용체 유전자가 동시에 제거됐다. 돼지의 면역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흉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주입한 돼지의 배아를 대리모 돼지에 이식하고, 대리모로부터 생산된 돼지가 면역세포(T/B/NK)와 흉선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돼지는 사람의 면역체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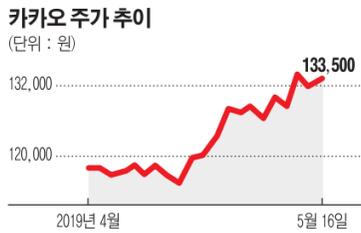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돼지에게서 키운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물론 혈액 속 다양한 면역단백질을 정제해 암 같은 난치성 질환용 의약품이나 백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희 센터장은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인체부속물인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사용해 동물에게서 행하는 실험의 경우 기관 IRB 허가만으로 충분하다는 회신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카카오 쓸어담는 外·기관

카카오페이·뱅크 등 투자 결실  
올 1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이달 들어 2400억 순매수 합작  
주가 지난달 말 대비 11% 상승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 주식을 연일 사들이고 있다. 증시 큰손들의 매수에 힘입어 카카오 주가는 코스피 대형주들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카카오 주식 1647억5500만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카카오는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다. 기관 역시 카카오(772억3000만 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 같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카카오 주가도 상승장구했다. G2 간 갈등과 국내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200이 지난달 말 대비 6% 넘게 하락했지만 카카오 주가는 11%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주목을 받는 이유

에 대해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카카오는 그동안 인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워온 만큼 사업 영역이 방대하다.

주요 자회사를 통해 살펴보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IX,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등 인공지능(AI)에서 블록체인, 금융, 게임, 콘텐츠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사업 영역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말 카카오는 승차공유(키풀) 사업이 택시업계·정치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등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자

투심도 바뀌는 양상이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7063억 원, 영업이익은 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2%, 165.9% 증가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카카오페이·뱅크의 핀테크 사업 등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맺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가 최근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것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격적인 M&A(인수·합병)를 통해 성장해왔던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규제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동훈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면서 계열사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 카카오벤처스 등 금융사 또는 보험사 의결권 제한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6일째 '셀코리아' 나선 外人

G2 분쟁 영향... 1.4兆 팔아  
7개월 만에 최대 매도공세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 원, \*5월 16일 기준)

종목명	금액	현재가
삼성전자	169,239	41,550
현대차	41,161	127,500
호텔신라	40,543	98,600
이마트	30,820	146,500
SK하이닉스	24,947	71,900

※출처: 한국거래소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총 1조497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 만 4667억 원의 매물을 출회했다. 순매도 규모로는 지난해 10월 23일(5654억 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증권가는 외국인의 자금 유출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을 꼽았다.

이영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이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과 맞물려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화가 안정을 찾으려면 일단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5월이 지나고 6월은 돼야 미중 무역분쟁 등 이슈가 어느 정도 가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금호전기, 자회사 정리에도 재무부담 여전

LED 조명 사업 중 업체 경쟁·판가 하락에 수익 회복 더뎠다

'번개표 형광등'으로 유명한 금호전기가 재무위기 돌파를 위해 부실한 자회사 정리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과중한 재무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까지 부정적이어서 앞으로의 재무지표 개선 가능성도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773억 원, 영업손실 478억 원, 당기순손실 20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3.8%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520.8%, 3.5% 손실액이 증가했다.

금호전기는 지난해 종속회사인 루미마이크로와 금호에이치티를 각각 256억 원, 399억 원에 매각한 데 이어 올 3월 금호에이엠티의 청산까지 결정했다. 2015년부터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과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해 온 금호전기는 이를 통해 차입금 규모는 줄었지만, 매각 전보다 자산규모가 줄어 재무부담이 크게 늘었다.

금호전기 재무지표 (단위: 원)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4152억	1014억	773억
영업이익	74억	-77억	-478억
영업이익률	1.80%	-7.6%	-61.8%
총차입금	2347억	2219억	1029억
부채비율	187.60%	196.40%	390.90%
차입금의존도	51.00%	54.10%	60.40%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금호전기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총 차입금이 1029억 원으로 2017년 2219억 원 대비 1000억 원가량 줄었다. 그러나 계열실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금호에이치티를 영업실적에서 제외하면서 영업적

자가 확대됐고, 해외생산설비 감액에 따른 당기순손실 등으로 부채비율은 2017년 196.4%에서 지난해 390%까지 급증했다.

자산총계는 2017년 4099억 원에서 지난해 1703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총자산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 의존도도 2017년 54.1%에서 지난해 60.4%로 증가했다. 당기순손실 지속과 결손금 확대로 자본이 빠르게 감소해 자본총계도 2017년 1383억 원에서 지난해 347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회사를 살릴 주력 사업인 LED 조명이 영업적자 기초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자회사 정리로 높은 경쟁 강도와 수익성 저하가 만연한 LED 일반조명 분야로 사업영역이 줄어들었다. 금호전기는 별도 기준으로 영

업이익률이 2017년 -1.9%에서 2018년-49.7%로 급속히 악화됐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과 판가 하락 등으로 재무지표를 개선시킬 만한 수익성 회복은 앞으로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승범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주요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했지만 LED 조명사업 내 중국업체가 다수 진출한 상황인데다 차별화된 기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건비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최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금호전기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김태현 한신평 연구원은 "기존 일반조명 사업과 신사업의 실적 부진, 투자 증가 등으로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사는 곳은 달라도 꿈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도 한국에 사는 영민이도  
'선생님'이라는 같은 꿈을 꾸니다

서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은 편지에 '희망'을 담아 전합니다

kutneivers 희망편지쓰기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인성교육입니다.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오너 2세 개인회사〉

# ‘동희하이테크’ 내부거래로 승승장구하며 고속성장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 동희그룹

동희그룹 오너 2세인 이태희 사장의 개인회사 동희하이테크가 그룹 내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기업 가치를 키우고 있다.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자금줄 또는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동희그룹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으로 2004년부터 ‘모닝’을 기아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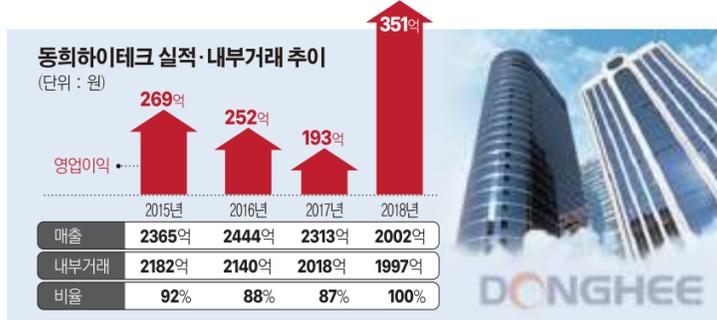
지주회사인 동희홀딩스를 정점으로 동희정공(이하 지분을 100%), 동희산업(100%), 동희(100%), 동희오토(45%), 베바스토동희홀딩스(25%)를 비롯한 국내 계열사들과 미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 해외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동호 회장이 동희홀딩스 지분 51%

계열사 車부품 재가공·재판매 2006년 매출 발생 후 흑자행진 작년 말 기준 잉여금 2704억 승계 과정 자금줄로 활용될 듯

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그룹 체제 밖에 있는 동희하이테크가 나머지 49%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2006년 말부터 다수의 기업분할과 흡수합병 등 경영권 승계 준비작업을 거쳐 2014년에 현재의 지배구조를 갖췄다.

특히 동희하이테크는 회사 지분 전부를 이 회장의 장남인 이태희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 그룹 내 일감을 받아 성장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9월 설립된 이 회사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부품을 수주받아 재가공, 다시 그룹 내 계열사에 판매해 실적을 올린다. 특히 기아차와 함께 해외에 진출한



타에 해외법인을 포함한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90% 이상이다.

동희하이테크는 안정된 매출처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은 2006년부터다. 그해 38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3년 뒤인 2009년에는 823억 원으로 규모가 두 배 넘게 커졌다. 2년이 지난 2011년에 1614억 원으로 또다시 두 배가 늘었고 2년 뒤에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 2444억 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고, 전방

시장 부진에 작년에는 2002억 원으로 후퇴했다.

동희하이테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사업 준비로 매출이 없었던 2005년 22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이후로는 단 한 번의 적자가 없었다. 2006년 영업이익 4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51억 원으로 흑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13년간 거둔 영업이익 총액은 2168억 원이며, 매년 평균 167억 원의 이익을 냈다.

최근 5년간은 영업이익률이 평균 1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작년 영업이익률은 17.5%에 달했다.

동희하이테크는 사업 영역에서의 지원 외에 지배구조 개편 과정 중 이 회장으로부터 합작사인 베바스토동희홀딩스를 비롯해 동희홀딩스 지분 일부를 증여 받기도 했다.

두 회사 지분에 대한 장부금액은 2136억 원으로 취득원가 1015억 원 대비 두 배가 됐다. 이러한 지분법 이익과 내부거래로 올린 수익은 동희하이테크의 가치를 키우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 2704억 원의 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회사 설립 이후 2013년 50억 원 규모로 중간배당으로 단 한 차례만 받았다. 이를 두고 당장 개인 호주머니로 수익을 챙기기도 기업가치 증대에 힘써 경영 승계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다.

조남호 기자 spdran@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MASERATI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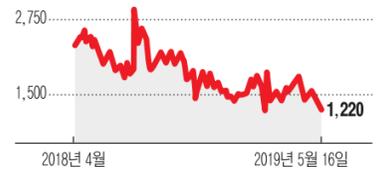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 “폴더블폰 수혜... 하반기 매출 기대”

기업 주식 담당자

### 주담과 Q&A

파인텍 주가 추이 (단위: 원)



### 파인텍

OLED 본딩장비 전문기업 파인텍이 폼팩터(제품의 구조화된 형태) 변화로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중국 BOE로부터 본딩 장비 신규·개조 수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는 만큼 기업 체질 개선도 가능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수주 잔고는?

“최근 스마트폰 폼팩터의 변화에 맞춰 삼성 및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OLED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 폴더블폰 국내 출시 임박과 베젤리스 스마트폰의 시장 관심이 증폭되면서 국내외 수주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이월 및 신규 수주 등 현재까지 250억 원 규모의 플렉시블 복합 본딩장비 수주액을 확보했다.”

-중국 대상 매출 비중은?

“중국향 본딩장비 수주 비중이 3년 전 1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BOE, CSOT, 비전옥스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수주 비중이 26%까지 늘었

다. 전체 매출액 대비 중국 고객사 비중은 지속적인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연내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현황은?

“최근 약 355억여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무건전성 확보 등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워런트 장내 매수를 통한 오버행 부담을 축소하고, 214억 원 규모의 BW의 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2%에서 올 1분기 말 기준 59%로 줄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수익성 위주의 수주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 신형 스마트폰에 적용될 디지털 센서 사업 등 유의미한 실적 향상이 전망된다. 중국향 매출 비중 확대 등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고종민 기자 kim@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5월 16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502,000	67,400 (15.5%▲)	모네로	106,700	10,050 (10.4%▲)
리플	550	50 (10.0%▲)	비트코인골드	26,830	2,060 (8.3%▲)
라이트코인	119,400	13,400 (12.6%▲)	이더리움 클래식	9,620	1,710 (21.6%▲)
대시	187,400	21,600 (13.0%▲)	퀀텀	4,019	566 (16.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서울 불났는데 남양주에 물 뿌리나”

## 3기 신도시 왕속 설명회 가보니

“서울에서 불 났는데 경기도 남양주에 물을 뿌리는 식의 3기 신도시 정책은 백지화해야 한다.”

16일 오전 10시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남양주왕속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실내체육관에 하나둘씩 모였다. 왕속지구 주민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왕속2지구, 다산신도시 대책위 주민들도 체육관에 모였다.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착용한 대책위는 ‘주민생존권 국토부장관 남양주시장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패널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오전 10시 예정대로 설명회가 시작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퍼스트엔지니어링 직원이 발표에 나섰다.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중 왕속지구가 그린벨트(GB)환경평가등급 2·3등급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에 주민들은 “무슨 3등급이냐”며 반발했다. 왕속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평가서의 미흡한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 나섰다. 설명회 시작 10분 만이었다.

이원근 왕속지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남양주 왕속지구의 절반 이상이 GB환경평가등급 1·2등급인 만큼 3기 신도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남양주 왕속의 GB등급별 비율은 1등급 6.1%, 2등급 46.8%, 3등급 47.1%로 나와 있다.



16일 오전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예정이던 ‘남양주왕속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무산된 직후 이 지역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을 백지화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체육관 바닥에 설명회 자료가 버려져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그린벨트환경평가 대부분 1·2등급... 주택지구 지정 안돼 지난 50년간 정책 협조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 돼야 하나” “물러가라” 주민 항의에 파행... 관계자들 현장 빠져나가

이 사무국장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9·13 부동산 대책, 9·21 부동산대책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등급은 3~5등급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왕속지구의 경우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1·2등급 약 53%는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이 없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지난 50여 년간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협조했던 남양주 왕속지구 주민들이 왜 희생돼야 하나”며 “서울에서 불났는데 남양주 왕속지구에 물을 뿌리는 3기 신도시 지정 정책은 백지화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설명회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20분 만에 중단됐다. 설명회가 끝나자 객석에 있던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물러가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중의 왕속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통문제, GB해제 부당성,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600쪽이 넘는 초안서를 공람하리는데 이는 주민들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서지희 기자 jhsseo@

## ‘블록형 주택’ 삼송 자이더빌리지, 3.3㎡당 2000만원 넘을듯

최근 아파트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은 블록형 단독주택을 선보여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GS건설이 관심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고양시 삼송지구에

새로운 블록형 단독주택의 분양을 준비하면서 분양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GS건설은 6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 자이더빌리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

하 1층, 지상 최고 3층 전용 84㎡ 단일면적 총 432가구로 이뤄진다.

관련 업계에서는 삼송 자이더빌리지의 분양가가 최소 7억 원에서 7억 원 중반대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3.3㎡당 2000만~2200만 원가량의 분양가를 기록하게 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비상경영’ 대림산업, 주택부문 충원 왜?

플랜트본부 영업손실 길어지자  
올 1분기에만 195명 회사 떠나  
실적 양호 주택은 125명 늘어

대림산업이 플랜트본부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올해 1분기에만 정규직 직원 195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13~2017년)간 영업손실이 1조 원 이상 누적되면서 임금 동결, 승진 중단, 근무지 이전 등 조처가 취해져 인력이 대거 감원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 31일 기준) 대림산업 플랜트 본부의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 수는 1245명으로 지난해 말(1440명) 대비 195명, 지난해 동기(1436명) 대비 28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 플랜트본부는 장기간 영업손실이 누적되자 계속해서 몸집을 줄여왔다. 플랜트본부는 2017년 말 기준 정규직 수가 1588명이었다. 이 숫자는 1년 만에

1440명으로 148명 줄더니, 올 1분기에만 그 이상의 인원(195명)이 회사를 나갔다. 지난해 무급휴직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사람을 계속 내보냈으나, 비상경영체제가 유효하게 작용한 올 초부터 인원이 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근무지 지방 이전 △3년간 임금 동결 및 승진 중단 △보직수당 폐지 △임원 대거 감축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플랜트 본부 임원 전원의 사직서를 받고, 잔류하고자 하는 임원은 임금의 30%를 반납하도록 했다.

또 2월에는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인천 송도 IBS타워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계획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본부의 급격한 사기 감소, 핵심 인력의 대거 이탈 가능성 등 문제로 송도로의 근무지 이전 계획은 철회됐으며, 중단됐던 승진도 재개됐다.

반면 양호한 실적을 올린 주택 부문은 올해 1분기 정규직 수 111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125명 늘어난 수치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서산 동문 꿈에그린’ 잔여분양 마감 임박

한화건설은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서산 동문 꿈에그린’의 잔여가구 분양 마감에 임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산 동문 꿈에그린은 지하 2층-지상 23층 8개 동, 총 471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59㎡ 119가구 △73㎡ 168가구 △84㎡ 184가구다. 평(3.3㎡)당 평균 분양가는 600만 원대다. 잔금 2년간 유예(30%) 등 조건도 눈길을 끈다.

충남 서산시는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공원 바로 앞에 단지가 위치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서산시에 따르면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 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산 동문 꿈에그린. 사진제공 한화건설

문주태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뛰어난 학군으로 지역대표 선호단지인 ‘서산 동문 꿈에그린’은 최근 온석근린공원 개발사업과 맞물려 분양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잔여거구에 대한 분양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화제의 신간

1천만 관객 대종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사작이다. - 이청준 소설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불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실음의 웅여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학 문학평론가·교수

한(恨)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경기지사>

# ‘직권남용’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 법원 “친형 입원 보건법 따라” 허위사실 공표 3개도 무죄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태원 기자 holjjak@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장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개를 각각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재선(친형)이 폭력적인 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보공개법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송사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 “판

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에 대한 내용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 지사 측이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문무일 “수사권조정,警에 독점적 권능 부여”

### 국회 패스트트랙 반대 재확인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반해” ‘檢 직접수사 축소’ 대안 제시

“소 잃을 것이니 외양간을 고치지자는, 아플 것이니 약을 처방해 주겠다는 잘못된 전제로 수사권조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또다시 강력 반발했다.

문 총장은 “수사를 시작하는 쪽은 결론을 낼 수 없고, 결론을 내는 쪽은 수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게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이라며 “그동안 예외적으로 검찰이 독점적 권능,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독점적 권능을 행사해 왔는데,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쥐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의 시각은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과 틀이 완전히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고 기소독점까지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며 “이렇게 예외적인 검찰의 권력이 문제”라고 재차 인정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가진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장효진 기자 js62@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부당지원 아냐”

### 경영진 공정거래법위반 첫 공판 “거래 지원액수 미미” 혐의 부인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하이트진로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이트진로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평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 등은 서영이엔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

어 약 8억5000만 원, 글라스락 캡 거래로 약 18억6000만 원 상당의 ‘동행세’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트진로 소속 직원 2명을 서영이엔티로 전직시키고 급여 등 명목으로 서영이엔티에 약 5억 원을 지원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영이엔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한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급여 보전액, 서영이엔티와 거래액 차이 등 액수, 마진 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서해인사이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축소를 위해 이뤄진 정당한 가격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불법 주정차 때문에 ‘뺑’ ... 한해 8만6000건

### 인명피해도 7600여 명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8만6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76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

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가 총 8만5854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인적 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633명 등 총 7649명에 달한 반면 물적 피해(차량 피해)는 총 8만5739대로, 금액으로는 차량 수리비 1108억 원과 보험금 991억 원 등

20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1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청주시(188명), 전북 전주시(180명), 경기 안산시(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시(151명)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19. 05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볼소풍 레시피  
살아있는 레시피  
시니어 고령화는 난항, 함께 즐기세요  
재미있는 건강정보  
조언하는 중장년 취미  
디지털 문화

나만의 공간을 향유하다  
**Agit**

### COVERSTORY 아지트를 찾아서

PART1. '2019 시니어 아지트' 설문조사 - 당신에게 아지트란?  
PART2. 지붕 없는 아지트 - 종로3가역 5년승구  
PART3. 지자체 아지트 - 또래끼리 배우고 우리끼리 놀자  
PART4. TV 속 아지트 - 시니어의 아침, 내 생활대로 먹는 게 최고야!  
PART5. 셀럽의 아지트 - 살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찾다  
PART6. 이별 맨 어간 - 유럽별로 추천하는 시니어 아지트

### 벨에이징 시니어 괴롭히는 난청 약화 막으려면 보청기 착용해야

서울시영선연구에 사는 신모 씨는 최근 손주를 보는 재미가 줄어들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내들이 말문이 터진 후 함께 도란도란 대화를 하는 것이 삶의 낙 중 하나였는데, 요즘 무척 손주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졌다. 난청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조용한 장소에서 무척더욱 목소리를 높이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가톨릭대학교 안천성오병원 이비인후과 이현진 교수는 “노인성 난청은 방치하면 약화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이 교수를 통해 노화로 인한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았다.”

### 귀촌 귀촌 준비? 그런 것 전혀 없이 내려왔다

함수(鄭煥)가 귀촌을 촉발했다. 양주시 이산면 산기슭에 사는 심원복(57) 씨의 얘기다. 어릴 때 고향한 시골 풍경이 일주일도 안가면 그리움을 불러오더라는 거다. 일주일, 소 잔등에 쏟아지는 석양속의 붉은 햇살처럼 목가적인 풍경들이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밥을 나눠주었던 인정이. 타향을 사는 자에게 향수란 근원을 향한 갈증 같은 것. 살아만 어차피 부름조차면 객지를 떠도는 일이지 않던가. 하지만 내일이 돌면서 함수가 감아졌던 모란 살아가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아질 즈음, 심 씨는 서울생활을 후다닥 접었다.

### 신라비가 만난 사랑

초연결시대, 노년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융합할 때  
진정일 고려대학교 영재교수

해설처럼 나타난 육상 스타 스포츠 스타  
정재근

울퉁은 뮤지션, 명랑히 젊은 그의 노래  
자연을 실려 온 허남석, 지지치 않는 청춘의 삶을 살다

### 타박타박 도보여행 봄 향기 따라 오강만족 나눔을 거닐다

남원 하연 훈향, 춘향 하연 광한무림단 생각났다. 남원에는 친정 광한무림 앞길 갈 데가 없을까. 궁리하던 때에 마침 강변중앙미술관이 개관했다. 오래된 동네 흥집과 같이 좋은 덕유산 술바람길도 발견했다. 이 신라비가 미술관과 연결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쁘던지. 남원을 여행하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나태주 시인의 '꽃피는 시가 종종 생각났다'.

### 자격증 두드림 '先 사회복지사 後 요양보호사'가 효율적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민인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노인복지·돌봄' 분야를 소개한다.

**시니어 발상**  
올해에도 사활을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볼소풍 레시피

**부치지 못한 편지**  
신아연 소설가 잔인한 봄날의 편지

# 버려졌던 담배공장 열린 미술관으로

## 올댓 트립 '여행 인싸 핫플레이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인기가 뜨겁다. 개관 100일 만에 무려 7만 명 가까이 다녀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관해 막 5개월이 된 이곳이 '핫플레이스'라니. 정답은 '신상 여행지'에 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개방형 수장고 미술관이면서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의 첫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점은 '여행 인싸'들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게다가 6월 말까지 관람료가 무료다.

◇연초제조창 창고의 변신은 '무죄'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곳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의 첫 국립현대미술관이다. 청주는 공예비엔날레가 펼쳐지는 예술의 도시다. 올해 10월 열리는 11회 청주공예비엔날레 주 무대 역시 청주관이 들어선 옛 연초제조창 부지다. 그러니 '지방 최초'로 손색이 없다.

둘째, 청주관은 종전 국립현대미술관과 다른 수장형 미술관이다. 마치 연극 무대의 뒤편을 보는 듯해 호기심이 인다. 수장형 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라고 한다. 그래서 공식 명칭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300여 점과 미술은행 소장품 600점을 수장하고 있다. 2020년까지 5100점을 수장할 계획이다.

옛 청주 연초제조창은 내덕칠거리 남동쪽에 있다. 청주 도시 재생의 상징이다. 청주관은 5층짜리 연초제조창 창고를 빌려 먼저 문을 열었다. 열лт 보면 반듯한 새 건물 같지만, 옛 창고를 리모델링했다. 기둥과 벽 등의 골격을 유지하며 수장형 미술관에 맞게 정비했다. 지붕 위 파란 물탱크도 옛 창고 건물의 흔적이다.

수장형 미술관의 특징은 1층과 3층의 개방 수장고(open storage), 1~3층의 보이는 수장고(visible storage)에서 두드러진다.

입구로 들어서서 필로티 역시 수장형 미술관을 실감케 한다. 오른쪽 유리벽 안으로 1층 개방 수장고 전시가 보인다. 대표하고 개방 수장고로 입장하기 전에 로비 전시부터 둘러볼 만하다.

입구 정면 벽에는 영상물을 상영한다. 옛 연초제조창 창고가 미술관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다. 그 옆 원통형 전시실은 청주 출신 작가 강익중의 '삼라만상'이 공간을 채운다. 중심에 반가사유상이 있고, 주변으로 그의 작품을 집적하게 하는 타일 그림이 춤춘다.

1층 개방 수장고는 청주관의 얼굴로, 길이 14m에 높이 4m 크기 3단 철제 선반 4개가 인상적이다. 각각의 단에 작품을 수장하듯 배치하니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작가는 김복진과 최만린, 문신 등 우리나라 조각계의 어벤저스다. 철제 선반 중앙 통로 끝에는 백남준 작가의 '데카르트'가 고목처럼 섰다. 그 밖에 서도호, 이우환, 니키 드 생팔 등의 대형 작품이 입구 쪽과 철제 선반 가장자리에 있다. 미술 작품 운반할 때 쓰는 알루미늄 팔릿(받침대)이 수장형 미술관임을 부연한다.

◇큐레이션 없는 미술관, '전시'보다 '수장' 중심 = 자연스레 감상법도 다르다. 1층 개방 수장고는 작품과 관람자의 경계가 없다시피 하다. 좀 더 가까이,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니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대 순이나 비엔날레 참여 작가 등으로 나열한 것은 수장 분류할 때 편의일뿐, 전시 작품의 교체 주기도 따로 없다. 작품이 대여되면 그사이 다른 작품이 자리를 채운다. 기획 의도가 개입하지 않으니 보는 이의 취향이 큐레이션이다.

1층을 둘러본 뒤에는 5층으로 이동해서 내려오며 감상한다. 1층 개방 수장고는 170여 점을 수장 전시해 일반 전시의 3~4배 규모다.

5층은 기획 전시실이다. 개관 기획전 '별 해는 날 : 나와 당신의 이야기'가 6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획 전시'로, 1층 개방 수장고와 작품 수나 전시 방식을 비교하면 수장형 미술관이 좀 더 쉽게 이해된다.

4층은 특별 수장고로 아직 준비 중이다. 전시는 3층 개방 수장고와 보이는 수장고, 2층과 1층 보이는 수장고로 이어진다. 3층 개방 수장고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전시한다. 1층과 달리 회화 작품을 다수 포함한다. 벽에는 미술은행 도록이 몰품 보관함처럼 자리한다. 문을 열면 해당 작가의 도록이 있다.

보이는 수장고는 '전시'보다 '수장' 기능에 집중한다. 온도와 습도 등 수장 환경에 따른 손상 우려가 있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감상한다. 그 너머로 김기창, 이종섭, 김환기 등 우리나라 회화 거장의 작품이 보인다. 3층에는 보이는 보존과학실도 있다. 화·금요일 오후 1~3시에 방문하면 보존 작업하는 모습을 창 너머로 볼 수 있다.

◇담뱃잎 보관하던 창고, 문화 공간 되다 = 청주관에서 나오면 동부창고로 이동한다. 이곳도 옛 연초제조창 창고다. 담뱃잎을 보관하던 창고 7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재정비해 개방하고 있다. 34동은 커뮤니티플랫폼, 35동은 청주공연예술연습공간, 36동은 청주생활문화센터다.

34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36동 셀카카페와 책골목길 위주로 돌아보면 좋다. 책골목길은 건물 안에 책 골목을 조성해 책을 읽으며 쉬거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다. 고개를 들면 천장의 목조 트러스가 1960년대 건물임을 증언한다.

호젓한 여행지로 청주관 외에 충북문화관을 추천한다. 1939년 건립한 청주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등록문화재 353호)를 활용했다. 아트막한 동산 위에 자리하며, 문화의집과 숲속갤러리로 나뉜다. 문화의집은 육천근 정지용, 고산군 홍명희 등 충북 사·군별 대표 문인 12인의 문학 자취를 기록한다. 적산 가옥의 다다미 구조를 살린 북카페가 있어 여행 스텝 역할을 한다. 이웃한 숲속갤러리는 실내와 야외 전시장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원에서 조용히 사색하며 머무르기도 좋다.

김소희 기자 ksh@

우리나라 첫 수장형 미술관 개관 100일 만에 7만여명 찾아  
관람객과 더 가까이 '개방 수장고' 길이 14m 높이 4m 3단 철제선반엔  
국내 조각계 거장들 작품 배치  
유리창 밖 감상 '보이는 수장고'  
김기창·이종섭·김환기 등 회화 작품  
총 1900여점 수장·전시  
내년까지 5100점으로

## 하늘 나는 듯한 짜릿함... 청풍호와 비봉산 한눈에

### 일어두는 여행 tip

#### 청풍호반케이블카 즐기는 법

청풍호는 1985년 충주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인공 호수다. 면적 67.5km<sup>2</sup>에 저수량 27억5000t으로 국내 최대 인공 호수인 소양호 뒤를 잇는 규모다. 충북 제천시와 충주시, 단양군에 걸쳐 있어 제천에서는 청풍호, 충주에서는 충주호라고 부른다. 주변에 청풍문화재단지,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청풍랜드, 유람선, 오토캠핑장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많다. 그림 같은 청풍호 풍광이 한눈에 담기는 최고

전망대로 비봉산(531m)을 꼽는다. 봉황이 알을 품고 있다가 먹이를 구하려고 비상하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청풍호 한가운데 우뚝 솟은 비봉산 정상에 오르면 봄빛 머금은 푸른 호수와 아름다운 산자락이 장쾌하게 펼쳐진다. 힘들게 등산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3월 새로 개장한 청풍호반케이블카를 타면 정상까지 9분 만에 올라간다. 내륙에서 산과 호수를 함께 조망하는 유일한 케이블카다.

청풍호반케이블카는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일반 캐빈 33대와 바다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 10대가 시간당 1500명을 실어 나른다. 4면이 유리인 일반 캐빈도 스틸 만점이지만, 바닥까지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은 아찔하기가 한 수 위다. 더구나 캐빈 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매우 안정적이다. 탑승 인원은 최대 10명. 하루 승차장인 물태리역 앞에 넓은 무료 주차장도 마련했다.

물태리역 옆에 자리한 지름 15m 공 모양 건축물은 케이블카와 같은 날 개장한 시네마(CINEMA)360이다. 영상관 내부를 가로지르는 높이 6m 투명 다리에서 360° 풀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광활한 지구를 담아낸 '다시, 지구 : 도도새와 함께하는 대자연 여행', 드론으로 제천 풍경을 촬영한 '공중 산책 : 날아서 여행하는 청풍명월 제천'을 상영한다.

김소희 기자 ksh@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신한은행이 KBO 리그를 후원합니다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이승엽*  
KBO 홍보대사 이 승 엽

# 이제 당신이 마운드에 오를 차례!

지금 신한 SOL에서 신한 MY CAR 프로야구 예/적금 가입하고  
프로야구 관람과 시구의 기회를 잡으세요!

## 신한 페스티벌 2019

신한 페스티벌! 야구 관람의 기회를 잡아라, 1등은 시구의 행운까지!

아래의 상품 신규 및 컨텐츠 이용으로 받은 응모권으로 신한 페스티벌 이벤트에 응모  
응모권 획득 방법 | (1) 상품가입 : 프로야구 예/적금가입, MY CAR 한도조회, 주택청약 가입  
(2) 신한 SOL 로그인 > 신한은 야구다 > 쏘픽 참여/ 쏘타임 참여/ MY 구단 지정시

신한 페스티벌 경로 | '신한 SOL' 로그인 ▶ 씨니존 ▶ 신한은 야구다 ▶ 시구시타 페스티벌  
프로야구예적금 가입경로 | '신한 SOL' 로그인 ▶ 씨니존 ▶ 신한은 야구다 ▶ KBO재테크

1등	시구권 + 테이블석 (1인 2매)	1명
2등	응원석 (1인 2매) + GS상품권 (1만원권)	30명
3등	단체관람석 (1인 2매)	200명
Bonus	야구예매권 (1인 2매) 매월 추첨	50명

\* 1등 시구권 + 테이블석(1인2매)의 경우 LG, 두산은 구단 사정상 제공이 불가능하여 대체상품 테이블석(1인4매)로 제공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9-2-1064호 (2019.04.18~2019.06.30)※경품은 사정에 따라 다른 경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한 페스티벌 일정은 KBO 공식일정을 따르며 KBO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재채권과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3만원 초과 경품 제공간에 대하여는 2016.7.30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MY CAR 프로야구 예적금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BTS 팬·건담 덕후 잡으니 완판은 따라왔죠”

편의점 기획상품 잇단 히트...김일두 BGF리테일 생활용품 MD

2030 세대 겨냥 유티 있는 문구 등 감각적 요소로 차별화  
“내가 만든 상품 가맹점주·소비자 호평, 그 짜릿함이란...”

편의점 업계에는 ‘방탄소년단 투명 티머니’와 ‘핫식스 X 건담 HG 프라모델’을 출시하자마자 완판을 기록해 경쟁사의 부러움과 시샘을 받는 이가 있다. 상품을 기획한 주인공은 김일두 BGF리테일 생활용품 MD(상품기획자)다. 김 MD는 2016년 입사해 2017년부터 생활용품 MD를 맡아 CU(씨유)에서 교통카드, 문구, 완구, 목욕 세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2월 CU에서 단독으로 선보인 ‘방탄소년단 투명 티머니’는 그의 기획력이 돋보인 대표 상품이다. 방탄소년단 멤버인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의 사진이 디자인된 7종으로 구성됐다. 발매 전부터 팬들로부터 관심이 치솟으며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예약 문의가 빗발친 이 상품은 출시 이틀 만에 70%에 달하는 물량이 판매되기도 했다.

전국 CU에서 20만 장 한정으로 출시 후 완판돼 최근까지도 상품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 추가 생산을 요구할 정도로 이슈가 됐다. 김 MD는 “BTS 멤버 사진에 투명 소재를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한

점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며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5000원짜리 7종 세트가 약 1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고 설명했다.

그는 건담 40주년을 맞아 ‘핫식스 X 건담 HG 프라모델’의 독점 판매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에너지음료 핫식스와 협업한 모델로 건담 프라모델의 증가(宗家)로 꼽히는 반다이에서 제작했다.

김 MD는 “대규모 마니아를 형성하고 있는 건담 덕후의 힘은 놀라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CU 멤버십 앱 ‘포켓CU’를 통해 진행됐던 사전예약 판매는 불과 3분 만에 매진됐고, 이후 오프라인 판매를 위해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약 발주도 단 하루 만에 마감됐다.

최근 CU의 히트상품 대부분이 김 MD의 손을 거쳤지만 그도 처음부터 베테랑은 아니었다. MD 첫해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만든 ‘여행용 세트’가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자신감을 갖게 됐다. 김 MD는 “기능성을 강조한 기존 제품과 달리 2030세대를 타겟으로 한 제품인 만큼 감성 문구를 제



김일두 BGF리테일 생활용품 MD는 “내가 담당하는 상품은 곧 나 자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만의 특성을 담고 싶다”고 말했다.

품 패키지에 담아 재미 요소를 강조했다”면서 “파우치에는 제품명보다 여행용 세트 사용 상황을 묘사한 ‘난 이미 끝났어, 너 먼저 씻어’란 문구를 내세워 재미를 더한 점이 주효했다”고 떠올렸다. 이와 함께 개별 제품에도 ‘샴푸-대충 4박 5일치’, ‘치약-대략 일주일치’, ‘치솔-아마도 마지막 생존자’ 등 사용량과 관련된 제품 설명을 위트 있게 표현하는 등 감각적 요소를 더해 상품 차별화를 꾀했다.

후속 제품은 연예인 관련 상품으로 기획하고 있다. 그는 “매번 연예인 상품을 준비

할 때마다 힘든 점도 많지만, 고객 반응이 상당히 빠르고 적극적이라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연예인 굶즈는 대부분 구매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도 있다”고 전했다.

김 MD는 “직접 기획한 상품이 가맹점주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의 짜릿함은 말로 표현하기 부족하다”면서 “내가 담당하는 상품은 곧 나 자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만의 특성을 담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부 중기정책실장 김영환  
기획조정실장에 이상훈 전보발령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실장에 김영환(왼쪽 사진)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에 이상훈(오른쪽)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전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환 신임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지식경제부 전략시장정책과장,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광주·전남지방청장 및 해외시장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훈 신임 기초실장은 대구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 동 대학 공공정책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36회로 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청장, 소상공인정책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에  
박석진 前 감사원 감사관

한국수력원자력은 박석진(58) 전 감사원 감사관이 본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상임감사는 1987년 감사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감사관과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등을 지낸 감사 전문가다. 동아고와 부산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익 대표 사외이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정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용진 사외이사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을 졸업해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구기태 서울대치과병원 교수  
오스테올로지학회 임상연구 1등상

서울대치과병원은 치주과 구기태 교수가 ‘2019 국제 오스테올로지 심포지엄’에서 임상연구부문 1등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오스테올로지 심포지엄은 올해 6회째를 맞는다. 오스테올로지재단 주최로 3년마다 되는 행사로, 구강조직재생분야에서 전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워크숍과 강연이 이어진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현대카드 슈퍼콘서트에 ‘퀸’ 온다  
내년 1월 공연 ... 내달 13일 예매



현대카드는 내년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5 퀸(QUEEN)’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대카드 슈퍼콘서트는 퀸의 첫 단독 내한공연으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퀸의 오리지널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 그리고 2012년부터 프레디 머큐리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보컬리스트 ‘이담 램버트’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한편 이번 공연의 티켓은 스탠딩 R이 16만5000원, 스탠딩 S가 15만4000원이다. 지정석은 VIP석이 18만7000원, R석이 17만6000원, S석이 15만4000원이다. A석과 B석은 각각 12만1000원과 11만 원이다. 티켓은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판매되며, 현대카드 소지자는 사전 예매를 통해 다음 달 13일 정오부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예매는 다음 달 14일 정오부터 진행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전기차 배터리 원리 배우고 태양광 체험하고  
LG화학, 초등학교 대상 ‘재미있는 화학놀이터’

LG화학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전국을 돌며 특별한 화학 교실을 연다.

LG화학은 16일 여의도 본사 인근에 위치한 도림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명을 초청해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를 개최했다.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는 LG화학과 기아대책이 주최하는 체험형 사회공헌활동이다. 교과 과정과 연계된 재미있는 화학 실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된다. 2015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44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했다.

올해는 LG화학 전국 사업장 인근 7개 초등학교에서 총 1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

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LG화학은 총 4개의 체험관으로 화학놀이터를 구성하고 유엔(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한 다양한 과학실험과 인성 함양 교육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제공했다.

먼저 ‘LG화학존’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실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미니 충전소와 전기차로 구성된 ‘전기자동차 키트’를 제작해 LG화학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한편, 제작한 전기자동차로 레이싱 트랙 주행도 체험했다. ‘에너지존’에서는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켜 어둠을 밝히는 ‘태양광 조명등’을 제작해 신재



생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성 LG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재미있는 실험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화학놀이터를 통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미래 과학인재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화학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롯데홈쇼핑 ‘할담비’ 소셜펀딩...서울시니어연극제 기부

‘할담비’로 알려진 지병수<사진 가운데> 할아버지가 소셜 펀딩 캠페인에 참여해 복지관 기부에 나섰다.

롯데홈쇼핑은 7일부터 8일까지 롯데홈쇼핑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 채널에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소셜 펀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좋아요’ 1건당 1004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캠페인 목표 인원이었던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며 500만 원의 기부금이 마련됐다.

전달식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병수 할아버지,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부장 김종영(오른쪽) 상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왼쪽) 등 행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7월 진행되는 지역 축제 ‘제3회 서울시니어연극제’에 사용될 예



정이다. ‘서울시니어연극제’는 아마추어 시니어 연극단 및 뮤지컬단 등이 문화예술 활동을 선보이는 노인 연극인 축제다.

백미선 기자 only@

부음

▲박호덕(전 덴소코리아 조장) 씨 별세, 박호삼(한퍼니처 대표)·호찬(동양산업 직원)·호성(세진바이트 과장) 씨 형남상, 박호근(MBN 사회2부 차장) 씨 사촌동생상 = 15일, 창원 상복공영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55-712-0900

▲조성운(전 춘천시장·전 한솔개발(현 한솔오크밸리) 대표이사) 씨 별세, 조현철(SK텔레콤 부장)·현식·재근·재희 씨 부친상, 고한준(사업)·박진만(한국타이어 과

장) 씨 장인상 = 1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30분, 02-3010-2262

▲김삼곤 씨 별세, 임강신(넥슨지티 관리본부 이사) 씨 장인상 = 15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8일, 02-958-9721

▲정대원 씨 별세, 정희진(고한신협 상임이사)·현숙·현마·현자·해숙 씨 부친상, 정찬석(농업)·김철연(경주세무서 과장)·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최수용(한 의사) 씨 장인상 = 16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8

일 오전 8시, 033-744-3969

▲정운창 씨 별세, 정희택(세계일보 대표이사 사장)·임순(리틀엔젤스 단장)·원주(전정공분부 총재비서실장)·유진·유경(재미)·지택(재미) 씨 부친상, 이은정(부평여자중학교 교사) 씨 시부상 = 1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230

▲조학준(전 대성마리프 부사장) 씨 별세, 김숙정 씨 남편상, 김희주·조민정·조희중 씨 부친상, 강진기·노태영 씨 장인상 = 16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30분, 032-890-3195

▲김중구 씨 별세, 김종현·대현·태현 씨 부친상, 구재우·안중관(전 한국일보 제작국장, 전 뉴스스 사장) 씨 장인상 = 15일, 충남 보령 웅천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41-931-4447

▲차동호(전 동대부고 교사) 씨 별세, 차영균(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전 VP 대표이사)·지은 씨 부친상, 공은경 씨 시부상, 오치규(스텝스터디 원장) 씨 장인상 = 1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20분, 02-3010-2232

문제도의 세상 이야기



서울대 객원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차이나 리스크, 신흥국과의 협력으로 극복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57% 수준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앞선다. 2000년에 38.7%로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쳤으나 이제는 신흥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시장이 되었다. 이것은 중국을 제외한 151개 신흥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18.9%에서 23.7%로 크게 상승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중 간 무역마찰의 영향 등 차이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여타 신흥국으로 우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순조롭게 타결된다면 우리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조립 가공 기지로 하여 선진국이나 다른 수출 시장으로 향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마케팅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신흥국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상 방

문 등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흥국이 중국과 일본이 아닌 우리를 찾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원조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를 가 보면 주요 관공서들이 중국의 원조로 지어져 있다. 그러나 원조를 받는 국가 입장에서 당초 기대한 기술이전이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중국 노동력의 급속한 유입과 자본 종속으로 경제적 예측을 우려한다. 한편, 일본은 이들 입장에서 산업기술력이 너무 선진화되어 이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국 발전의 롤모델로 삼기 어렵다. 반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기술 수준도 그들이 넘겨받기에 적절한 정도로 평가한다. 게다가 한국은 중간 규모의 국가로 협력하더라도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역사적 동질성이 있어 편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우리는 신흥국과 호혜적 산업 협력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첫째, 우리 기업은 자동차, 전자 등 범용

화된 제품의 조립기술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나 화장품 등 소비재의 경우 그 나라의 문화적·지리적 여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의 경우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데 이를 제품화하는 기술력이 약하다. 우리 기업의 생산 기술 역량과 그들의 다양성을 결합하여 상품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 시장을 뚫을 수 있고, 우리의 배후에 있는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돌파구가 보일 것이다.

둘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농촌 인력의 도시 유입이 가속화되는데 이런 인력을 활용한 섬유 등 제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는 이들과는 경쟁 관계여서 협력이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해외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퇴역한 생산인력의 기술이 그들에게는 바로 사용 가능한 실용 기술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의 기술과 이들의 산업화 전략을 결합한다면 우리 기업에 또 다른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다.

셋째,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견 소득 국가로 발돋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롤모델을 찾고 파트너 국가로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아직 국제사회에서 신인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 애로가 크며, 민간 기업들이 단독으로 참여하기에는 정책의 변화 등 정치적 위험도 크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해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이 함께하면 성공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관세 인하 등 자국 시장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보다는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선호하는 만큼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면 민간기업의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협력은 물론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일관성과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흥국 지도층을 친한파로 만들고 해외 진출이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협력을 지원할 정책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기술 수준도 그들이 넘겨받기에 적절한 정도로 평가한다. 게다가 한국은 중간 규모의 국가로 협력하더라도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역사적 동질성이 있어 편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다.

김치오의 古美術을 찾아서



고미술 평론가 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도굴, 야만 또는 욕망의 실루엣?

이투데이, 말투데이

“망하지 않은 나라 없었고 도굴되지 않은 무덤 없었다.” 만연한 도굴 세태를 풍자하는 중국 속담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의 도굴 사랑(?)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청나라 세태후의 무덤은 그녀가 묻힌 지 겨우 19년이 지난 1928년에 도굴되었고, 강희제의 무덤도 1945년에 도굴되었다. 후장(厚葬)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 도굴은 피할 수 없는 관례였고 다만 그 시기가 금급할 뿐이었다.

우리는 어땠을까?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대명률(大明律)의 ‘발총률(發塚律)’을 준용해서 도굴행위를 엄격히 처벌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도굴은 부장품의 취득 목적이 아닌 원한에 대한 복수 또는 치죄(治罪) 성격의 도굴임이 분명하다. 사후에 중죄가 드러나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목을 치는 부관참시(首斬斬屍)도 같은 맥락이다. 아무튼 우리 역사에서 부장품을 취하기 위한 도굴이

흔치 않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후장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데다 조상 영혼의 안식처를 잘 보존하는 사회적 규범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통은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시련에 직면한다. 통감부가 설치된 무렵부터 이 땅에 몰려오기 시작한 일본인들에 의해 불법 도굴이 자행되었고 강제병합 이후는 더 심해져 전 국토 곳곳이 벌집모양처럼 파헤쳐졌다. 당시 도굴과 도굴품 장사로 생활하는 자가 수천에 이르렀고, 개성, 강화, 경주, 부여 등지의 고대 왕릉이나 분묘는 죄다 도굴되었다는 기록과 증언은 차고 넘친다.

이 땅의 도굴은 이민족의 침략 때 그 만행의 전례가 있긴 하지만, 씨를 뿌리고 번성케 한 주역은 일본인들이었다. 그들이 들여와 퍼뜨린 야만의 문화는 해방이 되면서 시들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저들의 도굴 행태를 보며 또는 하수인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생업으로 그 일을 계속하거나 가게를 차리면서 도굴은 이

어졌다. 우리 스스로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1950~60년대 먹고살기에 바빴던 시절, 도굴은 누구에게는 생업이었고 누구에게는 황재를 꿈꾸게 하는 신기루였다. 거기서 나온 도굴품의 상당 부분은 해외로 흘러 나갔고 일부는 국내 컬렉터 수중으로 들어갔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력이 축적되면서 고미술품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자 도굴은 더 기세를 부렸고, 맹정히 관리되던 무덤도 그 마수를 피해가지 못했다. 무덤만으로 성이 안 찼던 도굴꾼들은 석탑 등 불교 유적에 손을 대기도 했다. 석가탑 도굴 시도(1966)와 건봉사 사리탑 도굴(1986)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행히 도굴 열풍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진정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더 이상 도굴할 만한 무덤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인에 대한 존중의 상징인 무덤을 도굴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엄한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었음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이어온 이유는 뭘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듯이, 도굴품의 유희에 포획된 컬렉터가 있는 한 도굴은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도굴품인 줄 알면서도 그 유희를 거부하지 못하는 컬렉터의 숙명과 같은 수집 욕망은 그렇게 도굴의 추동력이 되어왔다.

그렇다고 어찌 그들만의 문제일까? 전국토를 초도화시킨 여러 차례의 외침으로 지상의 유물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 있던 것들도 일제의 약탈과 6·25 전란 등으로 멸실된 상황에서 도굴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주된 공급원이 되어왔다. 도자기의 경우, 단연컨대 조선 후기 만들어져 전세(傳世)된 백자를 제외하면 거의 가도굴된 것이다. 그 비단반은 도굴을 통해 수습된 유물들이 이곳저곳 박물관에 전시되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증거하고 한편으로 민간의 컬렉션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야만의 긍정할 수밖에 없는, 더불어 컬렉션 욕망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까?

☆ 신사임당(申師任堂) 명언  
“기품을 지키되 사치하지 말고, 지성을 갖춰되 자랑하지 말라.”  
조선 중기 문인, 천재 화가. 그리고 위대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어머니. 현모양처(賢母良妻)를 상징하는 인물로 5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추앙받고 있다. 1504-1551.

☆ 고사성어 /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는 새끼가 깨면 두 달 동안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는데, 그 까마귀가 자라나면 같은 시간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봉양하여, 자신을 길러준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다. 진(晉)나라의 이밀(李密)이 지은 진정표(陳情表)에 실린 자신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무제(武帝)가 이밀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지만 늙은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을 사양하며 한 말이다. “한날 미물인 까마귀도 반포지효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제가 늙으신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운이 좋나요? 아니면 실력이 좋나요?”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우문현답의 댓글이 달렸다. “실력이 좋아 결과가 좋으면 운도 좋은 거고, 실력이 좋지만 결과가 나쁘면 운이 나쁘다고 한다. 실력도 별로지만 결과가 좋으면 운이 좋다고 하고, 실력도 없고 결과도 나쁘면 운도 실력도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실력도 좋았고 운도 따랐다. 오래전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왔고, 반도체 초호황을 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작년 4분기부터는 속칭 ‘운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수급 불균형이 생겼고 가격도 하락했다. 울

해 들어서는 환율 변동이 커지고 있으며, 반도체 기기를 선언한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반도체 산업에도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또는 장기화 →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 → 중국

내수 시장 타격 → 중국의 한국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의 순으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면 중국이 미

국 반도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및 미·중 간 무역갈등의 전개 방향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초격차, 시스템 반도체 강화 등을 들고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도체 경기)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초호황이 꺾이고 여러 위기설이 난무한 지금, 반도체 업계의 진짜 실력 경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 시사상식 / 탄력점포  
일반적인 은행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과 달리 저녁이나 주말에도 문을 열어, 탄력적으로 영업시간을 설정하는 은행. 관공서 소재 점포, 외국인 근로자 특화 점포 등으로 그 운영 유형이 나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서랍  
책상의 ‘서랍’은 한자어 설함(舌舐)에서 변음된 말.

☆ 유머 / 공짜라니까  
교수, 사업가, 정치인 셋이 개업 3주년을 맞아 ‘오늘은 모두 공짜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건 중국집에 갔다. 셋은 팔보채와 난자완스, 유산술을 각각 주문했다. 주인은 알미워 “두 글자로 된 메뉴만 공짜”라고 비꼰다. 그러자 교수는 짜장을, 사업가는 짬뽕을 시키자 정치인도 얼른 비꼰다. “탕숙!”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반도체 위기론, 이제부터가 ‘실력’

해 들어서는 환율 변동이 커지고 있으며, 반도체 기기를 선언한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반도체 산업에도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또는 장기화 →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 → 중국

내수 시장 타격 → 중국의 한국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의 순으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면 중국이 미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편집부, 사회경제부, 유통바이오부, 뉴스팀, 국제경제부, 중기IT부, 사진팀, 금융부, 자본시장부.

이투데이 logo and address: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이슈&인물

대기업 사내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형무 폴레드 대표

# “현대차 사내벤처 출신, 가장 큰 자부심”

“사실 준비 기간이 길어서 분사한 뒤에 막막했던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인원구성도 미리 마쳤고, 가장 중요한 자금도 ‘기술보증기금’에서 꽤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후배들이 획기적인 아이템을 갖고 분사했으면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폴레드)가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흰철한 외모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그는 한눈에도 엘리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럼에도 부담스러운 선입견을 성큼 밀어내고 환한 웃음으로 다가선다.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대기업 사내 스타트업에 대한 선입견, 탄탄한 직장을 떠나 독립할 때의 막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현대기아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독립해 분사한, 차고 넘치는 자신감으로 뽐낼 만한 ‘주니어 카시트 전문기업’ 폴레드(POLED)의 이형무 대표다.

◇현대차 사내 스타트업 5년 만에 3곳 분사 = 현대기아차는 2000년부터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걸출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회사에서 독립해 분사하고 있다. 사내 스타트업은 매년 공모한다.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에만 팀을 꾸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가능성이 보이면 결국 ‘분사’라는 기회도 주어진다. 사내 스타트업으로 선정되고, 독립해 분사하는 일은 많은 연구원들이 꿈꾸는 일이다. 올해는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현대기아차의 사내 스타트업 3곳이 5월부터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그중 한 곳이 폴레드다.

폴레드를 창업한 이형무 대표 역시 한번 고배를 마신 뒤 사내 스타트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 기간을 거쳐 약 3년 만에 분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기아차가 20년 가까이 사내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육성해 왔음에도 분사한 기업이 많지 않다. 20년 가까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나 이제껏 11곳만 독립에 성공했다. 그만큼 현대차 내부에서 스타트업으로 분사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다 보니 분사 이후 연매출 300억~400억 원을 기록하는 회사도 나왔다.

분사한 스타트업 대부분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기술력에 대한 반복된 검증과 철저한 준비, 현대기아차의 지원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연구원들이 만든 카시트 =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형무 대표는 2005년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에 입사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자동차 연구원으로 입사해 올해까지 15년을 채웠다. 그 사이 신입사원이었던 그는 결혼을 했고, 아이 셋의 아빠도 됐다. 폴레드(Poled)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안전한 카시트’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시작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자기를 빼닮은 아이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 이 대표 역시 마찬가지. 세상의 중심에 내 아이가 웃음이 자리 잡으면서 안전한 카시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렇게 이 대표를 중심으로 현대기아차에서 10년 이상 안전한 차를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모여 카시트 개발에 나섰다.

현대차의 새시를 설계했던 이형무 대표와 친환경차 개발을 담당했던 최금립 연구원, 충돌안전을 담당했던 이인주 연구



현대기아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독립해 분사한 ‘폴레드’의 최금립 부사장과 이형무 대표. 이인주 부사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스타트업 선정서 한 번 고배 동료 연구원 2명과 의기투합 준비기간 거쳐 3년 만에 분사 창업자 3인·현대차 지분 나눠

회사 지원에 기보 자금도 큰힘 ‘아빠 마음 담은 안전한 카시트’ 국내 KC·유럽 NCAP 인증 현대차 내부 검증이 더 혹독

스타트업 꿈꾸는 후배들에게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해보라”



현대기아차 사내 스타트업 ‘폴레드’ 창업자와 직원들. 올 하반기 세상에 없던 획기적인 개념의 주니어 카시트 출시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원도 뜻을 함께했다. 3년여간의 집중 연구기간을 통해 2018년 1월 선보인 폴레드의 주니어 카시트는 벨트 꼬임을 방지하는 ‘회전형 불가이드’ 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만일의 사고 때 상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아이디어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카시트 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벨트 꼬임으로 인한 상해까지 줄였다는 호평도 받았다.

◇유럽 인증보다 현대차 내부 검증이 더 혹독 = 폴레드 카시트는 국내 인증(KC)은 물론 유럽(EURO-NCAP)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현대기아차 연구소 내 실증 테스트 설비를 이용해 일반 카시트 기업이 엄두도 못낼 수준의 엄격한 테스트도 거쳤다. 국내와 유럽에서 안전도를 인증받기보다 더 힘들었던 게 현대차 내부 충돌테스트를 통과하는 일이었다. 회사 내에서 안전도를 검증받기 위해서는 유럽 인증기준의 2배가 넘는 가속도를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의 완성품을 내놓기까지 고치고 또 고치기를 반복했다. 설계 수정만 수백 번을 거듭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테스트와 데이터 분석을 반복한 끝에 폴레드 주니어 카시트가 나왔다. 당연히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여느 카시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막상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동차의 안전과 설계, 데이터 분석에는 전문가들이지만 사업가로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사실 제품을 개발할 때는 가장 안전한 제품만 만들면 무조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오산이었죠. 다행히 시범사업을 통해 빠르게 개선해 나갔습니다. 빠르게 실행하고 개선을 반복하는 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형무 대표의 말투에서 다분히 현대차 출신들의 공통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무엇이든 결정이 되면 무조건 밀고 나가고,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도전문화가 묻어 있다. 잘못되면 재빨리 개선해서 성공할 때까지 또다시 밀고 나가는 스타일들이다.

◇세상에 없던 능동형 세이프티 카시트 준비 중 = 폴레드는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제품을 들고 회사를 나와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 대표를 포함한 공동 창업자 3인이 현대차와 지분을 함께 나눠 가졌다. 마케팅과 회사 전반에 대한 운영을 담당할 새 식구도 뽑았다.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 능동유아안전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게 폴레드의 목표다. 사고가 나기 전 유아를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꽤 안전한 카시트가 그들의 손에서 빛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형무 대표는 마지막으로 사내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결정하기 어렵고 잘 모르겠다면 일단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일단 실행하고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폴레드는 없었을 겁니다. 스타트업을 꿈꾸는 후배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해 보라고.”

김준형 기자 junior@

사설

## 자영업 대출 400조에 연체율 급등,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올해 3월 말 기준 400조 원을 처음 넘었다. 또 이들의 대출 연체율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쟁 심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연명하고,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내놓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 결과다.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규모는 405조8000억 원으로 작년 3월 말(365조7000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이보다 훨씬 많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 대출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작년 6월 말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 규모를 210조80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동안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가 7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0.75%로 1년 전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2015년 3월 말(1.0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지방 금융회사들의 연체율이 더 많이 뛰었다. 전체 은행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0.38%로 1년 전보다 0.06%p 올랐지만, 지방은행은 0.69%로 0.11%p 높아졌다. 제2금융권인 지방저축은행은 6.12%로 1.63%p, 지방 상호금융은 2.40%로 0.75%p나 급등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19.2%에서 21.4%로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부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경기에 민감하고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큰 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1.03%로 가장 높고, 도소매 업종이 0.88%, 제조업 0.76%, 보건·사회복지가 0.52%였다.

자영업 부채는 1인당 대출액이 많은 반면, 건전성은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일반 가계대출보다 훨씬 나쁘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저신용·저소득 차주(借主)가 대다수이고, 장기 불황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계층의 생계형 자영업도 많다. 소득 감소로 대출상환 여력이 떨어져 있는 데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대출을 또 늘리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의 늪에 빠져들고 상환불능 상태로 추락할 위험이 높다.

자영업 부채가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로 금융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지방과 2금융권의 부실이 쌓이면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아직 건전성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더라도 안이한 인식이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다 심각하게 보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이유다.

한 킷



### 버스 대란은 비껴갔지만...

시민들이 서울역버스종합승선터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가 제때 정류장에 도착한다는 전제하에 평화로운 풍경이다. 전국적인 버스 대란은 비껴갔지만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은 파업을 보류한 상황이다. 평화로운 풍경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길, 완전한 합의점을 찾길 바라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  
어제는 발레리나, 오늘은 화가?  
어떤 꿈이든 마음껏 키우렴 ”



**KBot<sup>SAM</sup>**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와 자산전문가가  
 제안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모두의 행복 (All Happiness)	전문가의 행복 (Expert's Happ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투자: 46.73%</li> <li>채권투자: 23.22%</li> <li>투자신회: 8.21%</li> <li>채권신회: 15.84%</li> <li>비투자: 6.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투자: 58.00%</li> <li>채권투자: 5.00%</li> <li>투자신회: 12.00%</li> <li>채권신회: 12.00%</li> <li>비투자: 13.00%</li> </ul>

주요 서비스: 자산관리, 투자신회, 채권투자, 비투자

로보어드바이저와 금융전문가의 자산관리서비스 케이봇 샘

천방지축 아이들과의 순간순간이 소중한 당신  
복잡한 자산관리는 KB에게 맡기고, 당신은 행복한 일상만 즐기세요

#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